

碩士學位論文

基本生活 習慣 形成을 통한 人性教育 方案 研究

- 初等學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許 正 勳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10040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李 愛 淑

2000年 8月

基本生活 習慣 形成을 통한 人性教育 方案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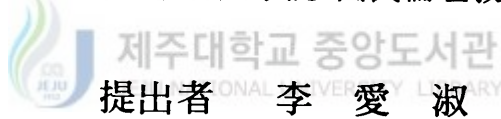
- 初等學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許 正 勳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李 愛 淑

李愛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이 애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허 정 훈

본 논문은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인성교육의 이론적 기초로서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인성교육의 지도 원리와 방법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인성교육과 기본생활습관에서는 인성교육의 토대로서의 기본생활습관교육, 내용,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지도함에 있어서 유의점을 소개하였다.

셋째, 기본생활습관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에서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원리, 실천·체험 활동을 위한 가치 학습 방안과 교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의 구안과 그 실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 내용을 요약하고 인성교육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끝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에서의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생활습관교육은 규범 수준이나 도덕성과 같은 거시적 측면보다는 직접 당면하는 작은 규칙들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우리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행하는 상당수의 도덕적 행위 중에는 습관으로 체질화되어야 할 도덕적 행위가 많이 있다. 이러한 도덕적 행위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습관으로 체득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오늘날의 교육은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기본생활습관교육의 지도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도적인 지도와 실천의지가 따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II. 인성교육의 이론적 기초	3
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과 내용	3
2. 인성교육의 원리와 방법	13
3.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	20
III. 초등학교 인성교육과 기본생활습관	24
1. 인성교육 토대로서의 기본생활습관 교육	24
2. 기본생활습관교육의 내용	29
3. 기본생활습관 교육 지도상의 유의점	35
IV. 기본생활습관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38
1.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교수·학습 원리	38
2. 실천·체험활동을 통한 기본 생활 습관 교육	43
3. 기본생활 습관 교육의 학습 모형과 실례	50
V. 결 론	72
참 고 문 헌	75
Summary	79

I. 서 론

기본생활습관이란 기본이 되는 생활을 자주 익혀서 습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사회 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또 앞으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삶의 양식에 따라 적응하며 행동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물질문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회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자기 중심적인 독선과 이기주의, 전통적인 도덕 경시풍조와 외래 문화의 선호 등 이러한 것들이 더욱 문제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생산 체계의 변화로 인한 급속한 핵가족화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회적 기풍을 조성하고 그것은 '내 자녀' 만을 생각하는 과보호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보호는 자녀들의 이기적이며 의타적인 행동, 무절제와 무질서 의식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공동체 의식을 깨우쳐주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기본생활습관을 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에는 어릴 때의 좋은 습관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좋은 습관은 어릴 때 익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동기의 생활습관 형성이 일생을 통해 전인적인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의 지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감수성이 높은 아동기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나선형 과정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에서도 기본생활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교과활동, 학교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전 영역에서 아동들의 바른 행동습관 형성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태도를 기르도록 구성하고 있지만, 아동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사는 지혜가 부족한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초등교육의 우선 과제는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으로 인해 기본 생활 습관이 학생들에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지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 이 문제는 학교 교육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생활습관교육 지도는 학교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며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생활습관형성을 위해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방법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인성교육의 이론적 기초로서 인성이 갖는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인성교육의 지도 원리와 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셋째,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수·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위한 인성교육 방안을 탐색해 보는데 있다.

Ⅱ. 인성교육의 이론적 기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성교육은 이 나라 교육의 나아가야 할 포괄적인 지향점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¹⁾

인성교육은 이 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제1차적인 과제이며 학교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인성 교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로 인성교육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널리 일컬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은 건전한 인격을 지닌 사람을 육성하는 도덕교육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을 정리한 기초 위에 인성교육의 내용과 교육 원리를 탐색하여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이론적 토대로 삼고자 한다.

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과 내용

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

인성이란 무엇인가? 인성이란 글자 그대로 사람의 성품이다.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품격이다. 성질은 마음의 바탕과 사람됨의 바탕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성이 어떠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사람됨이 어떠하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성의 개념이 '마음'과 '사람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은 '지'(知-앎), '정'(情-느낌), '의'(意-다짐)의 세 요소로 구성되고 지, 정, 의의 움직임이다. 이들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것은 정신적 작용의 총체이다. '지'는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이고, '정'은 사물에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리고 '의'는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은 선

1) 이택휘·유병렬 공저(2000), 「도덕교육론」, 서울: 양서원, p. 48.

악을 느낄 수 있고 시비를 판단할 수 있으며 행동을 다짐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다. 이처럼 마음은 ‘지’, ‘정’, ‘의’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 정신작용의 총체이다.

‘사람됨’은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사람되다’고 또는 ‘인간답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되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인간다울 때 비로소 ‘인간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됨 또는 인간다움은 무엇이고 어떠한 것인가?

남궁 달화는 우리의 인간다움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과 그 모습이라고 생각했다²⁾. 가치의 추구하고 실현은 사람으로부터만 찾아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인간이외의 다른 존재자가 인간처럼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어떤 동물이 인간처럼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 인간만이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가치의 추구하고 실현은 인간만이 가진 삶의 모습이다.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인성의 개념을 인간의 마음과 인간됨이라고 풀이할 때, 마음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 중립적이다. 이에 비해 인간됨은 가치 지향적이다. 인간됨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성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가치어이다. 이는 마음과 인간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앞에서, 마음은 지, 정, 의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했다. 그리고 인간됨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는 인간됨 또는 인간다움이란 ‘가치의 추구하고 실현’으로 구성된다는 풀이를 가능케 해 준다. 한편, 우리가 어떤 가치를 실현한다고 할 때 그 과정을 분석해 보면 가치가 지, 정, 의, 행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효를 실현한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知); 효를 실현하고 싶음을 느껴야 한다(情); 효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意); 이어서 효를 행해야 한다(行). 여기서 우리는 마음과 가치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남궁달화(1999), 인성교육론, 문음사, pp.228~230.

가치의 구성요소는 마음의 구성요소인 지, 정, 의 이외에 행이 더 있다. 마음과 가치는 구성 요소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마음(정신)과 가치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 준다. 양자의 관련성은 효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등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봉사하는 정신'에서 '봉사'는 가치이고 '정신'은 마음이다. 이처럼 '가치'는 '마음' 또는 '정신'과 함께 사용된다. 이는 가치와 마음의 관계를 잘 말해 주는 것이 된다.

마음과 가치의 관련성을 이상에서와 같이 생각할 때, 가치는 마음에 연속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치는 마음이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치란 마음에 행동이 가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가치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에는 조건이 있다. 즉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되 그 마음이 인간됨 또는 인간다움을 지향한 행동이어야 가치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됨은 가치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치는 마음이 인간 됨을 향해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성이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하여 제각기 나름대로 반응하는 일관적인 행동의 구조와 역동의 특성을 가리킨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인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우선 좁은 의미의 인성은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인간성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 인성은 인간됨 또는 인간다움을 의미하고 있다.³⁾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인 '마음'은 다른 요소인 '인간됨'의 과정에서 인간 됨을 위해 작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인성을 구성하는 '마음'과 '인간됨'의 관계에서 전자는 후자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그것에 '부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인간됨이라는 가치 지향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인성을 구성함으로써 '인성'이라는 용어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가치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인성이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시적 답변을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⁴⁾

3) 이성호(1996), 「인성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국정신문화원, pp.1~3.

4) 경남교육연구원(1992), 「생활지도자료」, 경남인쇄소, pp.62~64.

(1) 현실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이상이나 기대로 인해 현실적 조건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욕심이나 충동적 본능에 지배되어 현실의 제약을 무시하는 위험한 일이다.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사람은 주위의 사람, 사회적 맥락, 주어진 과제의 특징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다.

(2)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이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때 합리적이고 현실성에 적합한 행동을 한다.

(3) 감정이나 충동, 본능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감정이나 충동에 지배되는 사람은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하기 쉽다. 따라서 감정과 본능은 현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길러지고 승화되어야 한다.

(4) 자기 존중과 자신을 수용하는 능력

자기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왜곡하지 않고 자기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5) 정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노력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공감적이어야 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자기 노출이 있어야 한다.

(6) 자신의 능력을 창조적 활동을 통해 활용하는 능력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동 방식을 찾는다.

이상의 바람직한 인성의 예시적 답변을 토대로 할 때, 결국 인성교육이란 그러한 바람직한 인성을 교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에서 제시했던 인성 개념에 비추어 좀 더 인성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해 두기로 하자.

인성의 개념적 구성이 마음과 인간의 됴됨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인성

교육이란 곧 마음을 교육하고 인간이 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마음을 교육한다는 것은 그것의 구성요소인 지, 정, 의를 교육하는 것이다. 인간이 되는 것을 교육한다는 것은 그것의 구성요소인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은 한편으로는 지, 정, 의의 교육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의 교육이다. 그러나 앞에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마음과 가치와의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 정, 의 가치에 부속되는 것이므로 인성교육이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가치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인성교육에서 지, 정, 의의 교육이 가치교육에 비해 소홀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지, 정, 의의 교육은 가치교육의 기초와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으로서의 가치교육은 결국 인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인간됨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가치교육에 있어서 인간됨의 모습을 인간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삶의 모습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간의 삶이 어디까지가 개인적 삶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적 삶인가를 구별하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는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구별된다.

개인적 차원의 가치는 ‘자아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면 사회적 차원의 가치는 ‘도덕적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도덕은 그 자체가 가치이다. 도덕은 도덕적 가치의 준말이다. 그러나 도덕적 가치는 다른 종류의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이다. 그러한 점에서 도덕적 가치는 보다 사회성을 띤다. 이에 비해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는 보다 개인성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적 가치의 교육과 도덕적 삶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교육이 모두 가치교육이기는 하나 전자를 ‘가치교육’으로 그리고 후자를 ‘도덕교육’으로 부르기로 한다면 인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인성교육이란 마음의 발달을 위한 정서교육을 하는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이란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교육을 하는 것이다.

셋째, 인성교육이란 더불어 살기 위한 도덕교육을 하는 것이다.⁵⁾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할 때, 결국 인성교육이란 ‘학습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5) 남궁달화,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pp.7-11.

바람직한 인격 혹은 품성의 발달을 가져오도록 돕는 학교, 가정, 사회의 의도적인 노력의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⁶⁾ 이러한 개념정의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다. 우선 인성교육의 구성요소, 즉 하부 내용영역은 정서교육, 가치교육, 도덕교육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인성교육의 교육적 접근은 학교, 가정,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절에서는 전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2) 인성교육의 내용영역

(1) 정서교육⁷⁾

인성교육은 인간됨 또는 인간다움을 위한 교육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됨의 기초가 되는 마음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음은 지, 정, 의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교육은 지, 정, 의의 조화로운 발달을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와 교육에서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마음의 교육은 지, 정, 의를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마음의 교육은 정과 의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서에는 원인이 있다. 목표도 있다. 신념도 있다. 원인과 목표와 신념은 정서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한편, 신념에는 이슈가 수반된다. 정서가 목표와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정서교육도 목표와 신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서교육은 '합리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월슨의 이론으로부터 이끌어진 정서교육의 일곱 가지 구성요소(즉 정서의 인지, 사실적 지식, 사회적 기술, 사태에 대한 지각, 사태에 대한 사고, 정서행동의 결정, 정서행동의 표현과 억제)는 합리성에 기초되어 있다. 월슨에 있어서 정서교육은 교사가 아동·학생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도와주는 일이다.

정서교육은 교사에게 두 가지 역할을 요구한다. 첫째, 교사는 정서사태에서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저런 것'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역할 할

6) 이원종(1996), 「인성교육」, 교육자료 제40권. p.283.

7) 남궁달화(1999), 「인성교육론」, 문음사, pp.99~101.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 그의 의식적인 지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사가 다른 사람으로 역할 할 수 있을 때, 그는 아동·학생들에게 정서의 인지능력(통찰력)뿐만 아니라 정서사태에 대한 지각, 사고, 결정 등 다른 요소들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교육에 있어서처럼,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가 있다. 정서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법 또는 방법에는 무언극, 드라마, 게임, 즉흥적 행동, '창조적 춤', 음악과 율동, 역할 극, 집단토의 등이 있다. 한편 도구로서는 필름, TV, 인쇄물, 녹음기, 비디오테이프, 녹화기, 프로그램 학습기구 등이 있다.

교사가 이러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정서교육을 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교사는 아동·학생들에게 '정서인지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아동·학생들이 정서인지의 실체가 되는 '참된' 정서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교육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제적'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실제적' 모습을 볼 수도 있어야 한다.

셋째, 교사는 아동·학생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지한 것을 언어에 의해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정서교육의 방법과 도구는 어디까지나 '교과'에 대한 보조로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의 요소(영역)중의 하나는 정서교육이다. 정서교육에 의해 마음의 발달을 조화롭고 통합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조화와 통합은 인간됨의 바탕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를 인간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치교육⁸⁾

인성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교육이다. 인간다운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모습은 자아실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아실현의 모습은 인간다운 모습이다. 자아

8) 상계서, pp.228~230.

실현인은 인간다운 인간이다.

자아실현은 ‘나를 나타내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이루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를 이룬다는 것’ 은 ‘나의 인간됨’ 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나타내거나 이를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나 소질을 나타내거나 드러냄으로써 ‘나를 이룰 수 있다.’, ‘나의 이름’ 은 ‘나의 인간됨의 이름’ 이니, 이것이 곧 자아의 실현이다. 대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능력에 가치를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질이나 능력은 우리의 가치가 된다. 그러므로 나의 소질이나 능력을 드러내어, 발휘하는 것은 나를 이루는 자아실현 즉, 가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치실현이 자아실현이라고 해서 모든 가치의 실현을 다 자아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물질적 가치 또는 외재적 가치가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는 내재적 가치이다. 우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슬로우에 의하면, 우리는 자아실현의 순간에 절정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존재 가치, 즉 내재적 가치를 발견(또는 지각)한다. 이는 우리가 삶의 보람 또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아실현은 주로 과업의 성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과업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선택은 그 자체가 가치의 작용이다.

가치는 개인의 경험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삶의 경험을 통해 물질적 가치 또는 외재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의해서는 자아실현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자아실현은 ‘인간됨’ 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재적 가치 또는 존재가치와 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를 실현할 때 비로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건전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치교육을 교사가 아동·학생들에게 가치를 계발하고 판단하여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할 때의 가치 또는 가치관은 바로 이러한 건전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가치교육의 실체는 교사가 아동·학생들에게 가치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다루는 데서보다는 그 가치가 담겨져 있는 일이나 과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는데서 그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치교육은 아동·학생들이 과업의 성취를 통해 절정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존재가치를 지각하여 삶의 의미와 보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러한 가치교육은 아동·학생들이 자아를 실현하여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의 한 영역은 이처럼 교사가 아동·학생들이 자아를 실현하여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치교육을 하는 것이다.

(3) 도덕교육

도덕은 큰 길, 품행의 길, 은혜의 길로서 삶의 표준 또는 행위의 표준이다. 이러한 표준은 도덕의 원리에 의해 제공된다.

도덕원리는 ‘내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형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은 내용이 도덕교육, 형식의 도덕교육, 동기의 도덕교육이라고 한다. 내용의 도덕교육과 형식의 도덕교육은 표면적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기의 도덕교육은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존하는 바가 큰 편이다. 내용의 도덕교육과 형식의 도덕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내용의 도덕교육은 콜즈의 《아동의 도덕지능》에 나타난 인격교육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는 ‘도덕성’으로 볼 수 있는 ‘도덕지능’의 계발을 인격교육 또는 도덕교육으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도덕지능을 계발한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도덕지능 계발의 방법적 원리는 ‘목적에 기초한 상상’에 의해서이다. 아이들이 도덕교육은 그들이 목격한 어른들의 도덕적 행동을 상상함으로써 계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에게 행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형식의 도덕교육으로 ‘도덕적 문제해결 수업모형’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방법을 그대로 도덕수업에 적용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태를 만날 수 있다(문

제사태의 제시). 그러나 모든 문제가 도덕적 문제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문제사태의 인식). 도덕적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도덕적 문제인지를 알았다고 해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문제사태의 직면). 문제사태에 직면한 사람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행동을 하려면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도덕적 판단). 또한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행동은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감이나 손해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판단을 해놓고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귀찮아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판단대로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도덕적 의지). 도덕적 의지가 작용하여 도덕적 행동을 할 때 비로소 도덕적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도덕적 행동).

도덕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표면적 교육과정에 의한 의식적이고도 의도적인 도덕교육이다. ‘도덕과’ 교육은 후자에 속하는 도덕교육이다.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 그리고 학교의 일반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을 위해서는 ‘내용’의 도덕교육인 콜즈의 인격교육론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하여 학교에서 도덕과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을 위해서는 도덕적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형식’의 도덕교육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이 내용의 도덕교육과 형식의 도덕교육, 그리고 동기의 도덕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람직한 도덕교육의 접근은 세 가지 접근의 도덕교육이 동시에 그리고 함께, 즉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인성교육의 한 요소 또는 영역은 교사가 아동·학생들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덕교육에 의해 그들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다.⁹⁾

9) 상계서, pp.317~320.

2. 인성교육의 원리와 방법

1) 인성의 구성요소에 기초한 덕교육적 접근

삶에서 도덕과 이상은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어떤 사회에서든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자유로운 삶이 가치롭다고 하겠다. 인성은 그 사람의 가치관, 도덕적 성숙, 정신적 수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성은 사람이 삶의 방향과 도덕적 행위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인성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교육의 내용이다. 그러나 근간 우리는 학교 교육이나 가정교육에서 모두 인성교육을 소홀하게 다루었다. 예전에 덕교육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인성의 발달과정과 학습과정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최근에 미국에서 일고 있는 도덕 혹은 인성교육에 대한 인격 교육적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인격교육에 있어서 도덕적 덕교육 접근은 최근 들어 도덕교육에 있어서 습관과 행동을 중요시하는 인격교육의 부활운동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덕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의 윤리학의 주요 관심은 규칙 또는 의무이기보다는 사람과 인격이었으며, 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선한 사람(good person)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최근에 메킨타이어는 현대 도덕철학의 상황이 혼돈 속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 일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는 어떤 일관되고 공유된 도덕적 전통에 속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¹⁰⁾

이러한 현대 도덕 철학의 비판은 덕윤리학이 부활되는 계기가 되었다. 덕윤리학 교육의 주창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덕윤리의 개념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모형이 되고 있다. 그런데 덕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action), 감정(emotion), 실천이성(practical reason)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덕 개념

10) A. MacIntyre, *After Virtue*, *op.cit.*, p.204-205.

은 핀코프(Pincoffs)와 뉴스바움(Nussbaum)에 의해서 정립되어 가고 있다. 핀코프에 의하면 덕이란 일상적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의 선택 관계가 기본이 된다는 것이며, 덕과 악을 ‘사람에 대한 선호와 기피의 근거를 제공하는 성향적 특성’으로 정의한다. 그는 사람에 대한 선호의 기준이 무엇이 덕이고 무엇이 덕이 아닌지를 구분하는데 유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뉴스바움은 덕이란 ‘인간 존재로서 선한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 대답은 선한 인간 존재란 인간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정해진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사람으로서 선한 사람, 덕있는 사람은 각 영역에서 역할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덕윤리 교육의 방법인 덕목을 제시하고 이를 가르치는 덕목접근(virtues approach)은 Kohlberg 등에 의해서 교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피터즈가 “습관과 전통의 마당을 통해서 이성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습관과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덕교육은 도덕 원리교육에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덕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한 덕목수합 접근 방법 뿐만 아니라 도덕적 추론에 의한 방법도 포괄하는 통합적 방법에 의하는 것이 덕윤리에 의한 인격 교육적 접근방법의 요체이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인 유교, 불교, 단군신화 등에서도 덕윤리적 접근에 의한 인격교육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유학의 군자상을 향한 품성교육, 퇴계와 율곡의 입지를 위한 성, 경의 교육 방법은 오늘의 인격교육에서도 원용할 수 있는 덕교육적 방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원리교육 접근방법은 인격교육의 방법으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도덕 원리적 방법의 대표적인 이론인 인지발달 이론이나 가치명료화 이론은 덕윤리적 내용의 인격교육을 비판하면서 성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원리적 접근법을 인격교육의 방법으로 원용하는 이유는 인격교육이 습관과 실천 중심이라고 하지만 도덕적 추론에 의한 도덕적 지식과 사고력을 겸비하고 있을 때 습관의 행동화가 더욱 확고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지식이 없는 실천이나 행동은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인격교육은 덕교육적 방법과 도덕 원리적 방법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통합적 인격교육은 학습과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정의적 차원을 강조하면서 인지적인 과정들도 동시에 중요시하는 방법이다. 자기 정체성, 참여, 그리고 행위에 대한 의욕은 인격의 정의적인 측면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인격의 정의적 측면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신념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 사이를 통합시키는 요소가 되며, 그것은 인격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통합적인 인격교육의 방법으로서 가치교육을 통한 인격교육의 접근이론은 가치명료화 과정이나 가치분석 활동을 통해서 피교육자의 가치관이 어떤 기대한 방향으로 형성하거나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성품 계발을 통한 인격의 완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2) 인성의 발달단계에 기초한 단계론적 접근

도덕적 인성은 어느 날 갑자기 발달하거나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수직적, 수평적으로 발달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성 발달은 경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며,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의 특성을 알고 그에 알맞는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많은 도덕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미국의 인격교육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리코나(Thomas Lickona)를 들 수 있는 데, 여기서는 그의 관점을 예시해 보기로 한다.

리코나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20여 년간의 종단 연구가 끝나고 3수준 6단계론에서¹¹⁾ 제 6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밝혀지자, 자신의 『훌륭한 아이들을 기르기(Raising Good Children)』라는 책을 통해 6단계를 생략하고 대신 0단계를 추가하여 0~5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¹²⁾ 먼저, 0단계는 ‘자기 중심적 추론(egocentric

11)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3수준 6단계란, 첫째 인습이전수준에서 1단계는 ‘차별과 복종의 경향’, 2단계는 ‘도구적 상대주의자의 정향’이며, 둘째 인습수준에서 3단계는 ‘사람들 상호간의 동조성 또는 착한 아이 정향’, 4단계는 ‘사회 유지의 정향’이고, 셋째 인습이후수준에서 5단계는 ‘사회계약적 정향’, 6단계는 ‘보편적 윤리적 원리의 정향’이다.

12) Tomas Lickona(1983), Raising Good Children, New York: Bantam Books, pp.11~15; 여기서는 이택휘·유병렬 공저(2000), 『도덕교육론』, 서울: 양서원, pp. 219~222를 참조.

reasoning)’의 단계로서 학교 들어가지 전의 4세 정도의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아이들에게 있어 옳음의 기준은 나는 나 좋은 대로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사람이 선하게 되는 이유를 보상을 받고 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인식한다. 이 단계의 특징은 지극히 우스울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점인데, 그런 까닭에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공정이라고 판단한다.

1단계는 ‘무조건적인 복종(unquestioning obedience)’의 단계로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들에게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옳음의 기준은 성인이나 권위 있는 존재가 하라는 대로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고통이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파악한다. 이 1단계는 0단계가 정반대로 전환된 것으로서 어른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은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고 아이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단계는 ‘이기적 공정성(what-in-it-for-me fairness)’의 단계로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옳음의 기준은 ‘나는 나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나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선해야 하는 이유를 자기 이익, 즉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을 얻는 데에서 찾는다. 2단계는 다시 1단계가 급전환된 특성을 나타낸다. 즉,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부모들은 우리에게 명령해서는 안 된다!’ 라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생활 문화 속에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대체로 이 시기의 학생들이 리코나가 말하는 2단계의 속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단계는 ‘사람들 상호간의 일치(interpersonal conformity)’의 단계로서 초등학교 중·고학년과 10대 초·중기의 연령대에 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옳음의 기준은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사회적 인정) 나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야(자기존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 3단계의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관심을 높게 가지며,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을 크게 보인다. 이런 이유로 해서 3단계의 학생들은 협동적이고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

을 많이 보인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 사이에서 무엇이 참으로 옳은 지를 분별하는 힘이 약해, 종종 나쁜 친구들 사이에 휩쓸리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3단계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4단계는 '체제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to the system)'의 단계로서 고등학생 시절과 10대 말기의 학생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 옳음의 기준은 나는 내가 그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사회 체제 또는 가치 체제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체제의 붕괴를 막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파악한다. 3단계가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중시하는 데 비해, 4단계는 보다 크고 넓은 범위에서 자기가 속한 사회나 가치 체제의 유지와 존속에 헌신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하게 느끼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 단계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전체로서의 체제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한다. 따라서 충실하게 4단계에 이르면 준법과 납세 의무의 이해, 선거에의 참여, 자녀들을 잘 기르는 일과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일 등에 헌신하는 선량하고 양심적인 시민의 자세를 나타내게 된다. 다만 4단계는 지나치게 자신이 속한 기존 체제의 존속과 발전에 중점을 두는 관계로 때로는 이를 넘는 원리적 관점에서 현존질서를 비판하고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미흡하게 되는 그러한 흠을 지니기도 한다.

5단계는 '원리적 양심(principled conscience)'의 단계로서 젊은 성인들의 연령대가 이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 옳음의 기준은 나는 모든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 가능한 최대의 존경을 보이고 또 인권을 보호하는 체제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한 존경의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양심의 의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 5단계는 개인 존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선과 의무를 규정지으려 하며, 인권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법에 대한 최고의 존중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때로는 법이 인권을 보장함에 있어 미흡할 경우 그러한 법도 비판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점에서 5단계는 법 이전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도덕 원리와 강력한 사회적 양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인다.

이상에서 리코나의 도덕적 인성의 발달단계에서 대해 살펴보았거니와, 결국 인성교육은 이러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순조롭게 발달시켜 가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교육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인성교육의 제 형태와 통합적 접근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장(場)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크게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그리고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다시 세분해 보면 바른 생활과·도덕과를 통한 인성교육, 여러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학급 공동체를 통한 인성교육, 학교와 교과의 교육활동과 학교 공동체를 통한 인성교육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학생들의 유덕한 인격을 기르고자 하는 인성교육은 이 모든 형태의 인성교육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통합적으로 접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주위에는 인성교육이라 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바른생활과와 도덕과를 통한 인성교육이 전부이거나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학교 인성교육에서 바른생활 및 도덕과 교육이 중핵을 이룬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바른생활과·도덕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관련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학급·학교 공동체를 통한 인성교육, 그리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이 통합적 관점에서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장(場)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의의를 간략히 제시해 두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¹³⁾

우선, 바른생활과·도덕과 및 관련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이다. 학교에서의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은 바른생활과 및 도덕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른생활과와 도덕과를 통한 인성교육은 학교 인성교육에서 중핵을 이룬다. 본 연구도 이를 중심으로 교육방안을 모색하려 하거니와,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의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집중적으로 보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

13) 이택휘·유병렬(2000), 상계서, pp.295~315 참조.

은,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바른생활과와 도덕과 이외의 교과 교육 시간을 통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기부터 종전 주당 2시간이었던 3-6학년 대상의 도덕과 교육이 주당 1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도덕과 교육 시간을 줄이게 된 배경에는 바른생활과와 도덕과 시간 이외의 여타 교과 교육 시간과 학교생활 전체에 걸쳐 그리고 가정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학교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둘째, 학급 및 학교 공동체를 통한 인성교육이다. 교육의 책임자들은 바른생활과와 도덕과 교육 그리고 여타 교과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학급 및 학교라는 생활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 인성을 길러나가도록 모종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 학급 및 학교를 도덕공동체로 형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급을 도덕공동체로 운영한다는 것은 학급의 구조와 제도, 교실 생활의 분위기와 풍토, 교육적 활동, 관행, 개별지도 등을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급생활을 하는 가운데 은연중에 도덕적 삶의 품성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일, 학급의 규칙을 제정하여 스스로 지키게 하는 일,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긍지를 갖게 하는 일,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과업을 성취하도록 하는 일 등 다양한 제도와 활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도덕적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성향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학급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의 전반적 환경도 도덕적 문화와 풍토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학교와 가정·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이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면 학교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인격교육의 동반자로 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 하나는 도덕 규범을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는 규범을 준수하는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생활영역인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되고 통합될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

이 있는 사회화의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이고도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인성교육이 아는 것,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행위하는 도덕적 인격인을 기르려 하는 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도덕적 가치규범을 직접 실행하여 굳건한 덕성으로 자리잡도록 하려 하는 한, 그러한 도덕적 삶의 직접적인 체험과 바람직한 품성 형성의 기회를 넓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전한 도덕적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 조성과 관련 사회화 기관들의 공동 노력을 이루어 내기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적 노력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 하겠다.

3.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

이상에서 우리는 인성교육이 바람직한 인격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내용영역으로는 정서교육, 가치교육, 도덕교육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성교육을 접근함에 있어서는 자·정·의·행이라는 인격의 구성요소에 기초한 덕교육적 접근을 기본적 교육방안으로 하면서, 인성의 발달단계에 기초한 단계론적 접근, 인성교육의 제 형태에 기초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하여 이제부터는 본 고의 궁극적 목표인 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장을 달리하여 보기로 하고, 우선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 내지 그 중요성을 언급해 두기로 한다.

2절의 2항에서 리코나의 관점을 예시적으로 소개하면서 인성의 발달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발달해 가는 과정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많은 도덕심리학자 내지 교육학자들이 도덕성 발달의 구체적 단계 구분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고 학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기도 하다. 이들의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모두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논의들을 요약해 본다면 도덕교육에 대한 피터스(R.S. Peters)적 명제, 즉 '어린 아동들은 전통과 습관의 마당을 거쳐 이성의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야만 한

다¹⁴⁾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 점에 초점을 두어 몇몇 학자의 관점을 더 보기로 한다.

현대 도덕교육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뒤르켁(Emile Durkheim)은 도덕적 사회화(moral socialization)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제시하고 있는 도덕성의 구성요소와 그것의 발달순서에 대한 견해를 보면 '규율정신'에서 시작하여 '사회집단의 애착' 그리고 '자율성'으로 발전해 간다고 보고 있다.¹⁵⁾ 이는 곧 그의 도덕교육이론이 도덕사회화로부터 원리적 도덕성의 발달로, 도덕적 행동 습관의 형성으로부터 도덕적 정서와 의지 그리고 도덕적 이성의 계발로 발전해 가는 그러한 도덕교육적 접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¹⁶⁾ 이러한 점에서 프랑케나(William K. Frankena)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성품(trait)없는 원리(principles)는 무력하며 원리 없는 성품은 맹목적"임을 지적하면서, 덕윤리와 의무윤리의 종합, 내용의 도덕교육과 형식의 도덕교육의 종합을 주장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이 중에서 어렸을 때의 도덕교육은 덕윤리에 기초한 내용의 도덕교육을 먼저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도덕성은 왜 인습적·타율적 도덕성으로부터 시작하여 합리적·자율적 도덕성으로 발달되어 가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피터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도덕성에 있지만, 그러한 도덕성의 발달에 토대가 되는 이성의 발달은 사람이 태어난 한참 뒤에나 찾아오고 또 인간의 도덕 생활은 그러한 이성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어야 하는 관계로, 먼저 그 사회의 생활양식과 문화, 전통에의 적응과 도덕 규칙의 수용, 그리고 이에 따른 행위습관을 먼저 형성하는 일부터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때 여기서 대두되는 난점이 있는 바, 말하자면 습관의 형성이 어떻게 이성의 계발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습관은 자동적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성의 개재를 배제하는 개념인데, 이 습관의 형성

14) R.S. Peters(1981),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London: Geoge Allen & UnWin, p.52.

15) Emile Durkheim(1973), *Moral Education*, rans. by Everett K. Wilson, New York: The Free Press 참조.

16) 이택휘·유별렬 공저(2000), 상계서, p.158.

17) William K. Frankena(1973), *Ethics*, 2nd ed. N.J : Prentice-Hall, Inc. 참조.

에서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이성의 계발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이른바 도덕교육의 역설(paradox)인데, 피터스는 이러한 역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도덕적 행동의 습관에는 완전히 이성의 개재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계적 반복만을 내용으로 하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습관, 도덕적으로 느끼고 의욕하는 습관 등 도덕적 이성과 합리적·자율적 도덕성의 발달에 중요하게 관련되는 성향과 능력의 습관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이성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교육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피터스에 의하면, 대체로 주입, 세뇌, 위협과 강압, 조건화 등에 의한 방법들은 습관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학생들의 이성의 발달을 저해한다. 물론 그들의 도덕성을 인습 단계에 고착화시키고 또 비정상적인 인격유형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탐탁지 않게 여긴다. 이에 반해 사랑과 신뢰에 바탕을 둔 좋은 인간 관계, 엄격함과 자애로움의 균형, 훌륭한 행동과 삶의 모습에 대한 모방과 동일시 등의 방법은 도덕적 습관을 확보하면서도 합리적·반성적 도덕성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피터스는 이러한 방법들을 권장하고 있다.

이상의 몇몇 학자들의 주장들에 의할 때 도덕적 인성은 결국 전통과 습관의 도덕을 지나서 원리의 도덕으로 발달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습관의 도덕은 어린 시절에 다져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피터스에 의하면 이성의 계발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습관의 도덕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지난 시절의 정신분석학이나 행동주의 심리학에 토대를 둔 맹목적이고 강압적인 사회화나 조건화가 아닌 도덕교육의 방안들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됨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제 관점들이 오늘날 덕의 윤리학과 인격교육운동을 주도하는 리코나 등에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덕적 사회화를 너무 강조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앞에서 보았던 뒤르켐의 도덕교육에서 초등학교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⁸⁾ 즉 뒤르켐은 아동의 도덕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사적 유대와 혈연 및 온정적

18) 이하의 논의는 이택휘·유병렬 공저(2000), 상계서, p.163을 참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가정을 통해서도 정치사회의 공적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적 품성을 길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가정에 비해 보다 공적 요소를 더 지니고 있으면서도 본격적인 시민사회 그 자체가 아닌 공적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과 사회 생활 양식의 습득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합한 기관으로서 학교를 중시한다.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 학교는 가정과 사회를 연계하는 하나의 훌륭한 가교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에서는 학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강제적 성격, 연령과 지역에 있어서의 성원의 동질성, 그리고 교육적 작용의 합리성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나 시민사회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도덕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학교의 도덕 교육적 의의와 역할을 강조하면서 뒤르켐은 여러 학교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를 도덕교육을 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기관으로 역설하였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이전 시기는 주로 가정에서 사적인 도덕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난점이 있는 데 비해 초등학교 이후 시기는 도덕성의 기초를 마련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도덕성 발달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로서 바로 초등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였던 것이다.

Ⅲ. 초등학교 인성교육과 기본생활습관

Ⅱ장의 3절에서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의 핵심은 전통과 습관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임도 보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통과 습관의 도덕이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의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즉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기본생활습관’의 교육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인성교육 토대로서의 기본생활습관 교육

초등학교 인성교육이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을, 인성교육이 곧 기본생활습관 교육으로 등치 시켜 이해하면 곤란하다. 인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과 습관의 틀을 지나 이성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수준에서 핵심으로 하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은 그것이 궁극적인 인성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1)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개념과 그 중요성

기본생활습관이란, 한 개인이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익혀서 습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¹⁹⁾, 관습과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사회 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또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양식에 따라 적응하며 행동하도록 도움으로써 성장하는 자신의 인격을 관리하는 안목과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²⁰⁾

기본생활습관과 인성지도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라

19) 충청남도 교육청(1992),

20)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1992),

는 말처럼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어 평생을 좌우하므로 어려서부터 좋은 버릇을 길러주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정신 자세와 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나쁜 습관은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마련이다. 인성 즉 사람의 됨됨이는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인 가치에 맞는 행동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생활이 몸에 배어 커가면서도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박범수는 초등학교 때 도덕교육은 우선 행동으로 나타내는 습관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¹⁾

첫째, 어린이들이 합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할 때까지 기본생활 습관교육을 보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심리적 발달 단계로 보아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맹목적 답습이라 할 수 있는 습관화 교육이 초기 도덕교육으로서 적절하기 때문이다.

셋째, 타성으로 행실이 굳어지기 전에 미리 덕행이 습관화되도록 유연성 있는 아동기에 덕행을 굳히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절바른 말과 행동, 친절함, 정직함, 부지런함과 같은 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어린이들에게 기본생활습관을 의도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전한 도덕성과 바른 기본생활습관에서 우리나라는 생활태도는 자기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는 응집력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2)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목표로써 기본생활습관 교육

인성교육의 토대로써 기본생활습관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6차)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의 함양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교과는 1-2학년울 대상으로 한 바른생활과와 3-6학

21) 대전내동초등학교(1996), “자율적 실천동기유발 지도를 통한 기본생활습관형성”, (대전내동초등학교의 미출판 연구보고서, p.5).

년을 대상으로 한 도덕과로 편성되어 있는데, 두 교과에 반영된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바른 생활과의 목표를 보자. 총괄목표와 하위목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총괄목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과 예절 및 규범을 알고 습관화하여,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하위목표로는 첫째, “기본생활습관과 예절 및 규범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둘째, “기본생활습관과 예절 및 규범의 실천을 통해, 건전한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도덕과의 목표를 보자. 총괄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여 습관화함으로써,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유덕한 인격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하위목표로는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과 예절 및 기본적인 도덕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둘째, 도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초적인 도덕적 사고·판단력과 합리적 의사결정력을 기른다.“ 셋째, ”도덕적 가치 규범을 좋아하고 존중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다.“ 넷째, ”일상생활을 통해 기본생활습관과 예절 및 기본적인 도덕 규범의 행위 능력을 익히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여 습관화한다.“고 되어 있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1, 2학년에 바른 생활과가 새로 생겼고, 3학년 이상의 도덕과는 주당 2시간씩이었던 것이 주당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도덕교과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주당 시수를 감축하는 것은 실제로 도덕교육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을 안게 되었다.

1, 2학년의 바른 생활과는 원래 사회과와 도덕과의 통합교과였던 것이 저학년의 기본생활 예절의 습관화를 위하여 사회과의 요소를 제외하고 오로지 인격 교육적 요소인 도덕적 습관, 기본 예절 등의 성품의 도덕을 주요 내용으로 가르치는 교과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생활과는 인지주의적 접근보다는 행동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기본 예절과 올바른 성품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3학년 이상의 도덕과에서는 종래의 인지적 접근 중심의 경향이 제 6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도덕과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다음 글에서

도 잘 나타나고 있다.²²⁾

“도덕과의 지도가 주로 교실의 수업 사태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언어적 작용을 전제로 할 때, 도덕 문제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일차적으로 강조하게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도덕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의 이해와 아울러 그 실천을 부각시켰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알면서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 고 확신했듯이 도덕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의 목표와 영역별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인지적 용어에 의한 접근과 정의적 용어에 의한 접근을 비교해 보면 6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격교육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정의적 영역의 비중이 많을수록 인격교육의 이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바른 생활과 교과 목표에서는 ‘습관화하여 도덕성의 기초를 형성한다.’ 고 서술하여 정의적 측면이 강조되나, 하위 목표에서는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습관화하게’로 규정하여 정의적, 인지적 두 영역이 대등하다. 그리고 2학년 영역별 서술에 있어서는 ‘예절과 규범의 중요성을 알고’ 등으로 진술하여 인지적 접근이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덕과 목표에서는 ‘도덕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와 ‘사고력과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 로 목표를 서술하여 제4차, 제5차 시기보다 오히려 인지적 접근이 심화되고 있다. 도덕과 영역별 목표의 진술에서도 또한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 ‘규범들 간의 관련성 파악’, ‘사고력과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등으로 인지적 영역이 먼저 전제되어 서술된 후 정의적 영역이 서술되고 있다.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의 교육목표 진술에서 사용된 인지적, 정의적, 용어의 빈도수를 분석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22) 국민학교 교육과정 (II)(199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63.

〈표-3〉 바른 생활과의 목표 진술에 사용된 용어의 분석(제6차 교육과정)

영역	서술 용어	빈도수
인지적 용어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기본적 예절과 규범의 필요함, 필요성을 알고’	7
정의적 용어	‘습관화하게, 습관을 형성하게’ ‘자세를 가지게’ ‘마음을 가지게’ ‘태도를 익히고, 태도를 기르게’ ‘도덕적 기초를 형성하게 한다.’ ‘의지를 다지게 한다.’	15

〈표-4〉 도덕과 목표 서술에 사용된 용어의 분석(제6차 교육과정)

영역	서술 용어	빈도수
인지적 용어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관련성을 이해’ ‘사고력과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 ‘도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7
정의적 용어	‘...생활 태도로’ ‘... 자세를 가지게’ ‘예절바른 태도와’ ‘인간관계, 인격 형성의 기초를’ ‘궁지와 사명감을’ ‘실천하게 하며’ ‘의지, 태도를 가지게’ ‘자질을 갖추게’	15

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의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는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두지만 정의적 영역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도덕교육은 도덕적 습관을 형성하고 기본 예절을 익히고 좋은 성품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기본생활습관교육의 내용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우선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덕목관련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바, 교육과정의 4개 영역 내용 중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덕목 중심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바른 생활에서 28개, 도덕과에서 20개의 기본 덕목을 선정한 것이다. 그 덕목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²³⁾

〈표-5〉 제6차 교육과정의 바른 생활, 도덕과 덕목 내용

생활영역	바른 생활	도덕과
개인생활	바른 몸가짐, 인사 예절, 언어 예절 건강, 안전, 자주, 정직, 성실, 정리 정돈 검소한 생활, 생활 반성	생명 존중, 자주, 성실, 절제, 실천 의지
가정·이웃·학교생활	(가정·이웃) 효도, 우애, 식사접대 예절, 친척간 예절, 이웃간 예절 (학교 생활) 선생님에 대한 예절, 학교 규칙 준수, 친구에 대한 예절, 학교 시설 이용, 학교 행사 예절, 학교에 대한 금지와 사랑	가정에서의 예절 학교에서의 예절 향토애, 관용, 경애
사회생활	공중도덕, 질서, 협동, 책임 환경보호	공공질서, 협동, 공익, 공정, 민주적 절차
국가·민족생활	국기, 애국가에 대한 예절, 국가애, 민족애, 통일 의지	국가애, 민족애, 통일, 국제 우호, 인류애

이하에서는 각 덕목에 따른 내용체계를 보기로 한다.

1) 바른생활과에 나타난 기본생활습관 교육

바른 생활과의 내용은 생활 영역 중심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은 대체로 문제 영역 중심의 구성 형태보다는 학생들

23)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pp.15~17, 65~66.

의 일상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생활 영역 중심의 구성 형태를 취해 왔다.

생활 영역의 구분은 학생들의 생활 경험이 공간적으로 확대해 가는 생활상의 특성을 살려 개인생활→가정·이웃 생활→ 학교 생활→사회 생활→국가·민족생활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저학년이 학교에 처음 입문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3~6학년 도덕과와는 별도로 ‘학교 생활’ 영역이 설정되었다.

① 내용 구성의 특징

첫째,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들, 즉 기본생활습관, 기본 예절, 공중 도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저학년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경험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셋째,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넷째, 저학년 수준에서 실천이 가능한 규범을 중심으로 되었다.

② 내용 체계표



<표-1> 바른 생활과 내용 체계표

생활 영역	주요지도 요 소	1학년 내용	2학년 내용
개인 생활	바른 몸가짐	몸을 깨끗이 하고, 용의를 단정히 하기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알고 익히기
	인사 예절	상대에 알맞은 인사하기	때와 장소에 알맞은 인사하기
	언어 예절	웃어른에 대한 바른 말씨 익히기	바른 말, 고운 말 사용하기
	건강·안전	등·하교시의 안전한 행동을 알고 지키기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자주	자기가 해야 할 일 스스로 하기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 할 일 스스로 하기
	정직·성실	시간을 잘 지키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기
	정리 정돈	학용품 및 주변 정리정돈하기	
	검소한 생활		물건을 아껴 쓰고 저축하는 습관 기르기
	생활 반성	하루 생활 돌이켜 보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해 보기

가정 이웃 생활	효도·우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가정의 일에 협력하기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기
	식사 접대 예절	바른 식사 예절을 알고 지키기	방문하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 바른 예절 지키기
	친척간 예절		친척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알고 예절 지키기
	이웃간 예절	이웃 사람들에게 예절 바르게 행동하기	이웃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삼가기
학교 생활	선생님에 대한 예절	선생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예절바른 태도 가지기	
	친구에 대한 예절	친구를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친구의 의견 존중하는 태도 가지기
	학교 규칙 준수		학교 규칙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 습관 기르기
	학교 시설 이용	학교 물건 바르게 이용하기	학교 시설 바르게 이용하기
	학교 행사 예절		학교 행사 때 예절 지키기
	학교에 대한 긍지와 사랑	가정과 학교의 차이점을 알고, 학교 생활에 적용하기	학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사랑하기
사회 생활	공중 도덕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 바르게 이용하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지켜야 할 일을 알고 지키기
	질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 지키기	
	협동	힘든 일 함께 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책임		자기가 맡은 일 끝까지 하기
	환경 보호	쓰레기 바르게 처리하기	자연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국가 민족 생활	국기, 애국가에 대한 예절	국기, 애국가에 대한 바른 자세 가지기	
	국가애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우리 나라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기르기
	민족애		해외 동포들의 생활에 관심 가지기
	통일 의지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 가지기

③ 학년별 내용의 구성

바른 생활과 학년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각 생활 영역별로 주요 지도 요소를 축으로 하여, 지도의 주안점과 지도 요소를 제시되었다.

둘째, 저학년 학생들의 특징을 감안하여 ‘개인 생활’ 및 ‘학교 생활’ 과 같은 학생들의 관심 영역이나 구체적인 생활 경험의 영역은 많은 내용을 다루도록 제

시되었고, ‘국가·민족 생활’ 과 같이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내용만 제시되었다.

셋째, 1학년은 주로 ‘생활에의 적용’, ‘습관 형성’ 을 강조하였고, 2학년은 여기에 덧붙여 ‘규범의 필요성 인식’, ‘보다 나은 생활 습관 형성’ 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여 구성하였다.

넷째, 바른 생활과 설정의 기본 취지를 살려서 지도 요소의 진술을 ‘ - 하기’ 로 통일함으로써 태도나 행동화에 주력하였다. 예를 들어, ‘몸을 깨끗이 하고, 용의를 단정히 하기’ 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²⁴⁾

2) 도덕과에 나타난 기본생활습관 교육

① 내용 구성의 특징

제6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도덕과는 도덕적 원리나 규범의 합리성을 이해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과 내용 선정의 취지에는 도덕과에서 다루는 내용의 특성이 함축되어 있는 바, 그 주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에서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사물이나 사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거나 혹은 개념의 의미, 개념들 간의 논리적 관계의 인식만으로 완전하게 설명될 수는 없는 다른 종류의 능력이다. 어떤 사태에서 그와 관련된 사실이나 지식을 충분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사태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따라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적절한 도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도덕과의 내용은 자연 과학이나 사회 과학에서 다루는 사실적 지식도 아니고, 수학 등에서 다루는 논리적 지식이나 미술, 음악 등에서 다루는 심미적 내용도 아니다. 도덕과의 내용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24)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바른 생활, 국정교과서주식회사, pp.10~12.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며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요구되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것이다. 비록 도덕과에서 사실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 등을 다루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이고, 도덕과의 중심적인 내용은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을 갖는다.

둘째, 도덕과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여기서 ‘일상 생활’이란 학생들의 전 생활 영역 곧 개인으로서의 생활, 가정·이웃·학교와 같은 근린(近隣)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 보다 넓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및 한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을 의미한다. 도덕과에서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일상 생활의 제 영역에서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요구되는 규범들을 다룬다.

그런데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요구되는 이와 같은 규범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들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규범이다. 그러한 규범들 중에는 서구 민주주의적 가치에 뿌리를 둔 것도 있고, 외래 종교에 뿌리를 둔 것도 있으나 주된 규범들은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도덕·윤리적 문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요컨대 도덕과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우리의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이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방향 짓는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 규범들이기 때문이다.

② 도덕과의 내용 체계

19개 지도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덕과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²⁵⁾

25) 상계서, pp.20~21.

〈표-2〉 제6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

생활영역	지도요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개인생활	생명 존중	동식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	건강한 생활	인간 생명의 귀중함	
	자주	좋은 일을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	창의적인 태도	적성에 알맞은 일과 앞날에 대한 설계
	성실	정직한 태도	약속을 지키는 태도	부지런한 생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절제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아끼는 생활	시간을 지키고 아껴 쓰는 생활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실천 의지			자신의 생활 계획과 반성	옳은 신념과 꾸준한 실천
가정·이웃·학교·생활	가정 예절	가족끼리 존중하고 아껴 주는 마음	친족간의 예절	조상들의 예절 생활에서 본받을 점	예절의 정신과 형식
	학교 예절	학교에서 일어난 흐뭇한 일과 반성할 일	학교에 대한 자랑과 긍지		
	향토애			이웃간에 존중하고 아껴 주는 마음	고장의 발전에 협력하는 태도
	관용	친구를 아끼고 믿는 마음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과 양보하는 마음	사랑과 자비의 마음
	경애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	손아랫사람에 대한 사랑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
사회생활	공공질서	공중도덕 지키기	다른 사람의 이익 존중	법을 지키는 태도	법의 정신 이해
	협동	봉사하는 마음	건전한 경쟁과 협동	시민 사회에서의 협동	공동체 의식과 참여하는 자세
	공익	여러 사람을 위하는 길	환경 보호와 공동체의 삶	경제 생활의 윤리	개인의 이익과 공동 이익간의 조화
	공정	사람 차별 않기	정의감과 용기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려는 자세
	민주적 절차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	회의할 때에 지켜야 할 태도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공정한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존중
국가·민족생활	국가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 발전에 협력하는 자세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	살기 좋은 나라
	민족애	나라를 위해 애쓴 조상들의 뜻을 이어받기	민족의 문화 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해외 동포들의 생활과 그들의 조국애	민족의 긍지와 사명
	통일	분단 현실의 인식과 통일과 필요성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	평화 통일의 방법	통일을 위한 노력
	국제우호	외국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지구촌 가족과 국제 문화 교류	
	인류애		세계 평화에 공헌한 사람들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의 길

③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목표²⁶⁾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 도덕과 교육은 교과 통합적 기능과 가치 통합적 기능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격과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와 구분된다. 즉, 여러 교과 교육에서 획득한 지식과 능력 및 태도를 도덕과에서 통합하여 인격 형성에 연결시켜 주며, 가정과 학교 및 사회 생활을 통해서 얻은 규범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하나의 통합적 가치 체계를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도덕적 원리나 규범의 합리성을 이해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며, 실천할 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도덕과의 교육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절과 도덕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도덕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며, 스스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생활 태도로 도덕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은 바른 생활과에서 배운 기본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성 형성의 기초를 다지며 사회 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 자질을 기르게 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3. 기본생활습관 교육 지도상의 유의점

1) 지도의 기본 방향

도덕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덕성’을 기르는데 있다.²⁷⁾ 이러한 도덕과의 지도는 종래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일’ 즉 덕목을 제시하고 강의나 훈화 등으로 이를 주입시키고 수행케 하려는 직접적인 방법을 강요해 왔다. 그 결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도덕적 실천력이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고해야 할 일은 일방적인 지시 위주의 학습 지도 방법에서 벗어나 자각, 자성, 자행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26) 상계서, p.20.

27) 교육부(1994), 「국민학교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37.

도덕과를 가르치는 목적이 도덕성에 바탕을 둔 높은 인격을 소유한 인간의 육성에 있으므로, 도덕과 교육을 통하여 도덕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이에 합치하는 행동의 일관성 있는 실천력을 길러 주어야 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도덕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도와주어야 할 일은 바로 도덕성의 고양, 즉 도덕적 원리의 합리성과 그 원리들 간의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일이다. 도덕과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도덕적 인격은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이 잘 통합된 총체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방향은 인지적 접근을 기초로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지적 접근을 보다 발전시킴으로써 도덕과 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²⁸⁾

1. 2학년은 일상적인 규범의 습관화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규범의 의미를 일깨워 주며, 3학년은 규범의 내면화에 있으며, 4학년은 규범의 이해가 강조되며, 5학년에서는 실제적 적용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6학년에서는 기본적인 덕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자율적인 인격 형성의 기초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²⁹⁾

2) 지도상의 유의점

초등학교에서는 학습 지도나 생활 지도의 단위가 거의 학급 단위이기 때문에, 학급 담임이 학생들의 기본생활 태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지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자료와 지도방법이 제공되더라도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모든 교사가 확고한 지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도 방법과 활용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도덕적 규범의 내면화 내지 습관의 형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가장 용이하다고 한다.³⁰⁾ 습관은 실제로 해 봄으로써 잘 형성되는데, 학생들의 직접적인 생활 경험의 장소가 교실보다는 일상생활 장면이기 때문에, 교실에서의 습관 형성을 위한 직접적인 지도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28) 교육부(1994), 「국민학교교육과정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65.

29) 상계서, pp.79~81.

30) 교육부(1995), 「더불어 사는 사람」, 장학자료 제103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7.

또한 교사가 지도 항목을 잘 지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실천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였더라도,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반복하여 실제로 행동해 보지 않으면 습관은 형성되지 않는다. 즉,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어떤 규범이 내면화되었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의 자극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지도하도록 제시되고 있다.³¹⁾

첫째, 지도 항목을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지도한다. 예를 들면, 친구간의 인사에 대하여 아침 협의 시간에 지도하였더라도,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날 국어 시간에 인사에 대한 관련 내용이 나오면 다시 친구간의 인사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그것도 오랜 기간 반복하여 지도해야 한다.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복사하여 가정에 보냄으로써 가정 지도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도 항목의 실제적인 상황이 학교나 도서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학생들에게 직접 해 보게 하고, 학교나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상황을 극화하여 시연해 보이는 지도가 바람직하다.

셋째, 학생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태도를 제시하고 비판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넷째, 요즘 일부 선생님들은 자기 학급의 학생이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여도 바르게 지도하여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언제, 어디서이고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을 보면 보는 데로 모두가 타이르는 입장 지도를 해야 학생들에게 주의도 되고 그릇된 행동이 확산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지도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도 자료를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가정의 협력을 최대한 얻어야 하고, 각종 학부모 모임에서 구체적인 지도 사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여섯째, 모든 지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른들의 솔선수범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태도는 담임교사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일상적인 언행, 태도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31) 상계서, pp.7~8.

IV. 기본생활습관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앞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교육 지도상의 유의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고찰한 것은 공교육기관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인성교육은 현행 교육과정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테두리 내에서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개별 학교의 교육주체자들에게 달린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에서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1.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교수·학습 원리

앞장의 3절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원리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기본생활습관 교육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교수·학습의 원리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택휘와 유병렬은 초등학교 도덕과 교수-학습의 기본원리로 2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1) 정합성의 원리, (2) 인지화의 원리, (3) 심정화의 원리, (4) 행동화의 원리, (5) 통합성의 원리, (6) 지적·도덕적 발달 단계 고려의 원리, (7) 주체적 자각화와 개별화의 원리, (8) 직접 일러주기의 원리, (9) 깊이 생각해 보기의 원리, (10) 모범을 보고 따라 배우기의 원리, (11) 감동감화의 원리, (12) 직접 해보면서 배우기의 원리, (13) 구체성과 현실성의 원리, (14) 자율적 탐구 학습의 원리, (15) 능동적 참여와 토론 학습의 원리, (16) 반복과 계속성의 원리, (17) 집단 활동의 원리, (18) 적절한 자료 활용의 원리, (19) 적절한 외적 환경 조성의 원리, (20)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에 의한 지도의 원리 등이다.³²⁾

초등학교 인성교육이 도덕성 발달을 두 단계로 고려하여 바른생활과와 도덕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상에서 제시된 교수-학습의 기본원리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핵심적 목표가 기본생활습관의

32) 이택휘·유병렬 공저(2000), 상계서, pp.475~499 참조.

함양에 있다는 점에 유의할 때, 인지적 접근의 원리들보다는 정의적이고 행동적 접근의 원리들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이택휘와 유병렬이 제시한 교수-학습의 원리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1) 직접 일러주기의 원리

직접 일러주기(telling)의 원리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 규범을 학생들에게 직접 제시하면서 열심히 강조하고 설득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여 내면화하도록 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도덕과 학습지도에서는 가급적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가치 탐구의 방법이 권장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직접 가치를 전수하는 방식이 결코 무시되거나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가르치고자 하는 도덕적 가치 규범의 특성, 그리고 놓여진 여건에 따라서는 교사의 직접적인 일러주기가 더 중요시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더욱이 학생들은 특히 어린 나이의 학생들일수록 자신들이 스스로 가치를 탐구하여 선택하고, 행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연령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준비, 성숙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가치와 규범을 선택하도록 온통 맡겨두는 것은 위험하며 또 그만큼 무책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잘못된 가치를 선택하거나 어떤 가치를 준거로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을 때, 교사나 성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 규범을 학생들에게 일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직접 일러주기를 중요 방법적 원리로 도덕사회화에 의거할 때 학생들은 타율적·인습적 도덕성 단계에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뜻에서 직접 일러주기의 원리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조건화나 세뇌, 억압적 주입, 공포 분위기 등에 의한 일방적 강요는 엄격히 피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는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도모하고 칭찬·시인, 긍정과 같은 강화 방법에 의해 건전한 이해와 내면화를 도모함으로써, 점차 반성적이고 합리적인 도덕성으로의 순조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안내하고 돕

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2) 모범을 보고 따라 배우기(modelling)의 원리

이는 바람직한 모형 제공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도덕적 모범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따라 배우도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도덕 교육에 있어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중요한 학습 지도 원리 중의 하나는 바로 본보기로써 가르치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 규범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모범으로써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말로 도덕적 선과 의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한 더 잘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보다도 그의 행동을 보고 더욱 더 잘 배운다. 말하자면 도덕적 가치나 태도를 배움에 있어 말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말이다. 이는 도덕과 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저학년으로 갈수록 더욱 그러하다.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일상적인 언행, 가치·태도, 사고 방식 등은 학생들의 도덕성 형성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는 훌륭한 도덕적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³³⁾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은 매우 크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 학급 담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향까지 따라 닮는 점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도덕적 권위의 대리자로서 교사는 그들의 언행과 사고방식이 학생들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늘 깊이 인식하면서 학생들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3) 감동 감화(feeling)의 원리

감동감화의 원리란 도덕적 가치 규범을 학습함에 있어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감화를 받음으로써 그 가치 규범을 깊이 신념화, 내면화하게 하는 원리를 말하는

33) 교육부(1992), 「국민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16, 45.

것이다. 감동감화의 원리는 직접 일러주기와 모범을 보고 따라 배우기 그리고 직접 해보면서 체험하기 등의 원리와 결합될 때 도덕적 가치 규범의 심정화를 이루어내는데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감명 깊은 설득과 감동적인 본보기 그리고 직접적인 체험이 결합되어 정서적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가치 규범을 받아들일 때 도덕적 삶에 대한 깊은 신념화가 한층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감동감화의 원리에 의한 수업 방안은 다양하게 강구될 수 있다. 예컨대, 친구를 도와주었을 때와 같이 규범을 실천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쁨을 같이 느껴 보도록 하는 것, 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를 되새겨 보도록 하는 것, 자기가 다쳤을 때 염려해 주던 주위 사람에게 느꼈던 고마움을 상기하여 다리를 다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보도록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여 길러진 공감과 감정이입, 도덕적 만족감과 긍지감 등은 그 자체로서도 소중한 덕성의 요소가 되면서 동시에 도덕적 행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기와 의지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4) 직접 해보면서 배우기(acting)의 원리

직접 해보면서 배우기의 원리는 도덕적 가치 규범을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직접 해보면서 익히는 직접적인 실천과 체험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덕은 덕스러운 행동을 직접 그리고 반복해서 해보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라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⁴⁾

특히 지난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는바,³⁵⁾ 여기서 말하는 직접 해보면서 배우기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실천과 활동을 통한 도덕교육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원리가 되기도 한다. 더욱이 이러한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도덕과 학습 지도의 원리는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는데, 구체적인 체

34) Aristotle(1915), *Ethica Nicomachea*, trans. by W. D. Ross, The Clarendon Press, pp.1103a.

35)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p.47.

힘과 실천 행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이해와 자각을 깊게 하고 그럼으로써 합리적인 내면화를 도모하는 데 공헌할 수 있으며, 이해된 도덕적 가치 규범이 아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도덕적 열정과 내면의 깊은 신념으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바른 도덕적 행동을 직접 습득하고 실천 성향화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³⁶⁾

5) 구체성과 현실성의 원리

구체성과 현실성의 원리란 말하자면 도덕과 수업을 실행함에 있어 학생들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와 경험,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을 지도 내용과 관련하여 다루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논의해 보게 함으로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고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안목을 길러 주는 동시에 도덕과 교육의 사회적 적절성을 제고시키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³⁷⁾

여기서 구체적·실질적 도덕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가르치려는 지도 내용을 학생들의 생활 장면과 경험 속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쟁점들과 관련지으면서 생생하게 다루어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 교사의 관점이나 견해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가급적 학생들이 스스로 숙고하고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가치 규범과 행위 노선, 생활 자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학습지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학생들은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도덕 문제에 대해 민감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삶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도덕적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의 구체적인 생활경험이나 사회적 문제들과 지도 내용을 관련지어 다룰 때, 도덕과 교육이 현실과 유리된 교과서 속의 도덕적 가치 규범을 피상적으로 가르치는 수준을 벗어나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그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도덕교육으로 구현됨으로써, 도덕과의 사회적 적절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36) 유병렬(1996),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과 도덕과 교육」, 한국교육신문사, pp. 116~117.

37) 교육부(1992),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79.

6) 반복과 계속성의 원리

도덕과 학습 지도에서는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 규범에 준거하는 도덕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습관화에 이르도록 반복 지도하는 계속성의 원리가³⁸⁾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도덕교육의 바람직한 귀결은 바르고 선한 삶에 알고, 느끼고, 의욕한 것을 행동과 실천으로 일관되게 구현해 내는 태도화, 행동화, 실천화, 습관화 단계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가치 규범에 준거한 행동이 하루 아침에 성숙될 수는 없다, 오히려 반복 실천을 통해 그것이 학생들이 거의 고정화된 행동 성향으로 정착될 때 비로소 어느 정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반복적·지속적인 지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습관화에 이르기 위한 이러한 반복 지도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하다. 반복지도로 습관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과의 해당 제재뿐만 아니라 관련 제재를 다룰 때에도 같이 지도해주고, 행동 시범이 요구될 경우에는 교사나 아동 또는 자원 인사의 시범을 통해 직접 지도하며 나아가 교실에서 실행이 가능한 가치 규범은 교실에서 수업 중에 직접 실습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실을 벗어난 장소에서 특별한 실천적 체험을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2. 실천·체험활동을 통한 기본 생활 습관 교육

실천·체험활동에 의한 가치학습법이란 학생들이 직접적인 실천과 체험활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 규범의 참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도덕적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판단하게 하며, 나아가 그 가치 규범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성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는 방법을 가리킨다.³⁹⁾

이러한 실천·체험활동을 통한 가치 학습 방법은 그 동안 실행되어왔던 우리의 도덕교육 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도덕과 교육은 직접 실행하면서 체험으로 배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38) 이영춘(1988),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pp.185~186.

39) 이택휘·유병렬 공저(2000), 상계서, pp 628-651쪽을 참조.

는 사회적·교육적 요청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지니는 의의가 매우 지대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체험활동에 의한 가치 학습 방법은 실제적인 활동이나 생활 속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가치를 자각케 하고 도덕적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을 직접 체득케 함으로서 건전한 인격과 덕성의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덕교육적 접근에 입각한다 하면서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그것은 직접 실행하면서 체험을 통해 배우는 방법을⁴⁰⁾ 추구하는 것이다.

실천·체험활동에 의한 가치학습 방법은 도덕교육의 덕교육적 접근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또 그것에 적극 부응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도덕과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우리는 말로 가르치는 일 외에 행동과 경험을 통해 가르치는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도덕적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여 내면화하게 하고 실천적 태도와 성향을 지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가치관은 용어나 문장을 읽거나 혹은 교사의 설명을 듣고 그 뜻을 암기하고 말할 수 있게 됨으로서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행동 경험을 통해 스스로 그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하나의 일관성 있는 행동 양식, 인지 양식, 성격 양식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요, 특정의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반복시키면 그 행동과 일치하는 방향의 가치관을 학습자가 스스로 받아들여 내면화하게 된다는 견해⁴¹⁾는 좋은 통찰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실천·체험활동에 의한 가치학습 방법은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실천적 탐구 활동을 통해 도덕 학습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한 덕성 형성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장점을 갖는다. 또한 실천·체험활동에 가치학습 방법은 도덕에 관한 지적 이해와 판단 능력육성을 위주로 하는 도덕과 교육에서 벗어나, 덕성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는 물론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범통합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갖는다.

우리는 도덕적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은 환경 및 사회적 과정이

40) 이택휘(1993),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방법」,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p 146.

41) 박용현(1979), 「가치관의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pp.297~298.

필요함을 알게 된다. 도덕적으로 건전한 학생들을 기르려면 그를 바람직한 태도를 지닌 학생들 속에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실천·체험활동에 의한 가치 학습 방법은 바로 이러한 점들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것은 예컨대, 바람직한 도덕 행동을 직접 실행해 보게 하고 선행 사례 같은 것을 조사하거나 이웃돕기, 봉사나 협동과 같은 가치나 덕목을 직접 실천·체험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도덕 학습의 사회적 맥락과 같은 환경 속에서 도덕적 실천과 습관의 형성을 꾀하고, 다양한 행동 경험을 통해 가치를 자각·내면화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도덕적 생활 능력과 성향을 기르도록 통합적인 접근을 취하는 중요한 특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실천·체험활동에 의한 가치 학습 방법을 운용하는데 적절한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여기서는 실습·훈련법, 현장 학습법, 덕목 실천법, 단체수련활동법, 그리고 참여적 실천활동법으로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⁴²⁾

1) 실습·훈련법



실습·훈련법은 바람직한 도덕 행동을 직접 실행해 보고 또 이를 반복적으로 실천하게 지도함으로써 도덕의 실천화, 행동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법을 말한다. 도덕과 학습지도에서는 구체적인 도덕 행동을 직접 실연해 보면서 몸으로 익혀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 실습·훈련법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기법으로서의 특·장점을 갖는다. 예컨대, 바른 인사와 언어 예절, 올바른 몸가짐과 옷차림, 청결·위생, 정리정돈과 같은 신변의 도덕 생활로부터 학교 행사 때의 예절, 공공 시설 이용법, 질서·차례 지키기, 환경 보호 활동 등과 같은 이웃·학교·사회 생활의 도덕, 그리고 국기·국가에 대한 예절 등과 같은 국가·민족 생활의 도덕 영역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도덕 행동을 직접 몸으로 익혀야 할 경우가 많은 데, 이를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실습·훈련법인 것이다.

실습·훈련법은 기본적인 예절이나 생활 습관 등 구체적인 도덕 행동을 직접 해보면서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저학년에서 많이 사용될 법

42) 이택휘·유병렬 공저(2000), 상계서, 같은 쪽을 참조.

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습·훈련법은 직접적인 도덕 행동의 실행과 이의 반복을 통한 행동화, 습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므로 도덕과 수업은 물론 관련 교과 교육 시간 그리고 학교 생활 및 그 외의 일상 생활 속에서 꾸준히 반복해서 지도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장학습법

현장학습법은 교실 내외의 생활 현장에서 도덕적 삶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직접 탐구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서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을 심화하고 건전한 도덕적 태도와 실천력을 기르고자 하는 기법을 말한다. 현장학습법은 이미 도덕 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인데,⁴³⁾ 다만 도덕과 학습 지도에서는 이러한 세부적 기법들을 활용하여 도덕적 삶의 모습과 가치를 탐구하고 체득하게 함으로서, 그 가치 규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자각을 도모하고, 도덕과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현장학습법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의욕을 높이고, 도덕 생활과 관련한 현상을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탐색, 파악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가치에 대해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이 기법은 일련의 가치 추구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게 하고, 도덕적 가치 규범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가치 규범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여 심정화, 내면화하게 하는 한편,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도덕 생활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실천력을 기르는데 공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3) 덕목실천학습

덕목실천학습법은 어떤 특정 가치나 덕목을 직접 실행하면서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그 가치나 덕목에 관한 인격 특성을 집중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43) 정세구(1987), 「사회과 교육의 과제」, 배영사, pp.112~126.
한면희(1988), 「사회과 교육의 과정 탐색」, pp.145~178.

기법을 말한다.

도덕교육의 본질과 특성은 필요한 도덕적 덕들을 조화롭게 길러 유덕한 인격을 지닌 사람을 길러내는데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격 형성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덕성들이 학생들 속에 잘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바, 그런 만큼 앞으로는 각각의 덕성에 따라 그것에 걸맞은 덕목실천학습법들이 속속 개발되고 또 열심히 활용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것이다.

현재 도덕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덕목실천학습법, 즉 봉사활동법과 협동학습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봉사활동법은 진실 되게 타인과 더불어 생활하며 타인을 돕는 활동을 직접 실행하고 그 의의와 가치, 바람직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간존중과 타인 배려, 이타심, 봉사하는 삶의 덕성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법을 말한다.

봉사활동은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 및 바람직한 인격 육성에 공헌하는 중요한 장점을 갖는다. 학생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이타심, 타인에 대한 온정적 배려, 공정성과 정의감, 시민의무감 등과 관련된 도덕적 능력과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품성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 및 인간관계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임을 알게 된다.

또한 봉사활동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과 그 가치에 대한 경험을 통해 도덕적 능력감 및 자신에 대한 건전한 도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에 대해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품성을 기르게 된다.

협동학습은 학습 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목표를 향해 소집단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 방법⁴⁴⁾ 또는 학생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학업과 여타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학습 형태⁴⁵⁾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44) 변영계(1999), 「지식 경영 사회와 협동학습」, 교육부, p.36.

45) Howard Kirschenbaum(1995), 100 Ways to Enhance Values and Morality in Schools and Youth Settings, Allyn and Bacon, p.232.

해되고 있다. 협동학습은 서로 다른 학생들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으로 학습과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심과 책임 수행, 상호 존중과 타인 배려, 인내심, 탐구와 개척 정신, 그리고 유용한 사회적 기능 등을 기르도록 하는 기법을 말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협동학습법이 특히 부각된 데에는 지금까지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교육으로부터 서로 협력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주의적 교육으로 강조점이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른바 교육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⁶⁾

협동학습은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동시적 상호작용성 및 개별 책무성⁴⁷⁾, 과제 분담과 적절한 보상 체제⁴⁸⁾,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과 책임 완수, 성공을 위한 동등한 기회의 제공 등을 기본 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지니는 장점은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다. 도덕과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볼 때, 협동학습은 협동의 가치를 기르는데 유리하다는 점, 학급 내에 도덕 공동체를 형성시켜 준다는 점,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자긍심 그리고 학교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켜 준다는 점, 학생들의 능력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감소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집단수련 활동법

집단수련 활동법은 심신을 단련하는 집단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몸과 강한 정신력, 공동체의식, 협동정신과 책임의식, 이타심과 봉사정신 등을 구체적으로 체득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덕성을 기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기법을 말한다.

집단수련 활동법은 집단활동법과 수련활동을 결합함으로써 이 두 가지 특·장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집단 활동으로서의 특·장점은

46) 추병완(1999), 「도덕교육의 이해」, 백의, pp.315~323.

47) 변영계·김광휘(1999),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pp.69~91.

48) 정문성(1999),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교육부, pp.16~17.

그것이 집단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집단수련 활동법은 심신의 수련, 즉 마음과 몸 두 가지를 모두 단련하는 활동에서 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마음의 단련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도덕적 장점과 약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 자세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또한 마음의 단련 과정에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는 굳센 의지와 용기, 자기 통제력으로서의 극기 능력을 기르고 도덕적 선과 의무, 그리고 훌륭한 자아 이상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키워나가게 된다. 나아가 몸의 단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건강하고 강인한 육체를 만들게 되며 이러한 튼튼한 육체적 조건은 건전한 정신을 기르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5) 참여적 실천 체험활동법

참여적 실천 체험활동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내외의 도덕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그 속에서 직접적인 실천과 체험활동을 벌여 나가게 함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바람직한 민주적 생활 양식을 익히게 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직접적인 실천과 체험활동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 또한 중요한 장점을 지닌다. 학생들은 참여적 실천체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실제적인 행동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가치 규범의 의미를 파악하고,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변별하여 부정적인 측면은 거부 내지 배척하는 대신 긍정적인 측면은 이를 받아들여 내면화함으로써,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의 직접적인 행동 실천의 경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적 의식과 생활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데 바로 참여적 실천 체험활동법의 중요한 장점이 있는 것이다.

참여적 실천 체험활동법은 대체로 학생들의 자치활동, 학교 내외 행사 참여 활동, 자율적 소집단 활동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학생 자치 활동은 주로 학급 또는 학교 내에서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실행 계획과 규칙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3. 기본생활 습관 교육의 학습 모형과 실례

흔히 ‘수업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 이라고 한다.⁴⁹⁾ 수업의 실재는 무한히 많고, 가변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예언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수업은 오히려 바람직한 수업의 원리를 체득한 지혜로운 교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진행될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다양한 도덕과 수업 모형을 알고 이를 도덕과 수업에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도덕과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수업 모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에 있어서 주가 되어야 할 것은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상의 내용과 교사의 의도이다. 따라서 수업 모형의 절차나 전략을 있는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지도 내용이나 교사의 의도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어떤 수업의 단계 혹은 어떤 내용에는 ‘반드시’ 어떤 수업 모형이 적절하다는 식의 고정된 틀은 없다. 그 결합이 그 중 적절하다는 것은 하나의 권장 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다음에 소개될 수업 모형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 등에서 개발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들 나라는 우리 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도덕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지도하는 도덕 규범도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교사들은 이 ‘차이’ 를 항상 염두에 두고, 수업 모형을 창의적으로 변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적합한 도덕과 수업 모형의 개발에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도덕과 수업에서 적용이 가능한 수업모형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⁵⁰⁾ 아울러 수업실행의 예시도 제시해 두기로 한다.

49)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3-1국정교과서주식회사, pp.38~47.

50) 교육부(1999), 상계서, 같은 쪽 참조.

1) 역할놀이 수업모형

역할놀이는 학생이 어떤 역할을 해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스스로가 지닌 ‘가치’ 나 ‘의견’ 을 좀 더 분명히 깨닫게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역할놀이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해 보는 과정에서 일상 생활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에 관한 여러 개념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모형은 샤프렐 부부(Fannie Shaftel and George Shaftel)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들은 20여 년 동안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정의감’, ‘애정’ 등 민주적 관념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이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역할놀이는 학급 전체의 학생들이 서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주어진 상황 속의 인물들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시행해 보며 이 같은 행동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은 일상 생활에서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또 일의 결과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같은 역할놀이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인간의 행동과 동기에 대한 통찰력이 실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뱅크(Bank)등이 제시하는 역할놀이 수업 모형의 이론적 가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인간의 상호 작용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함으로써, 문제에 직면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가치, 충동, 공포 또는 다른 외적 영향력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다.

셋째, 학생들은 역할놀이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모의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이상이나 의견을 행동으로 시험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가상적으로 어떤 역할을 행함으로서 문제나 상황의 핵심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역할놀이의 방법을 배움으로써 인간 상호 작용의 기술을 배우고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동기를 좀 더 잘 깨닫게 된다.

교사들이 역할놀이 수업 모형을 활용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여섯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물론, 단계의 순서는 있지만,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다. 또한 어떤 단계는 학생들과 함께 여러 번 반복할 필요도 있다. 단계에 시간을 할당하는 것도 수업의 분위기나 학생들의 흥미에 좌우된다.

역할놀이 상황의 설정→역할놀이 준비→역할놀이 참가자 신청→청중의 준비자세 확인→역할놀이의 시연→역할놀이의 토론과 평가

도덕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 사태’ 나 ‘모범 사례’ 들을 약간만 조정하면, 역할놀이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쉽게 역할놀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7〉 역할 놀이 수업모형의 예시

제 4학년 4월 3주

제재	4.용서하는 마음	차시	1/2	교과서	37-42
본시주제	태수의 눈물	수업형태	역할놀이 수업		
학습목표	♣ 용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단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문제사태 인식	<p>■ 이야기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 37쪽 삽화를 보며 일상생활에서 용서와 관련된 경험을 상기한다. ◎ 용서와 관련된 자기의 생활 경험을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지 못했던 경우는? · 남의 잘못을 용서받지 못했던 경우는? · 자신이나 상대방의 고통, 보람, 느낌 ◎ 교과서 예화 '태수의 눈물' 종이 인형극을 시연한다. <p>■ 학습목표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p>▶ 삽화 TP 또는 교과서</p> <p>▶ 교사용 지도서 94쪽 역할놀이 대본 참고</p>	
규범의 미 추 구 및 색 탐	<p>◎ '용서' 라는 말의 뜻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p> <p>■ 활동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시간의 활동 방법을 안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다음날 이야기 꾸미기→인형극 극본 쓰기→인형 만들기→역할 정하고, 인형극하기→의견지 작성→이야기별 토의→이야기 나누기 <p>■모듬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로 다음날의 이야기를 '육색 사고 모자' 기법 중 한가지 색에 따라 꾸민다. <p>적색 : 직관에 의한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색 예) 태수의 행동 : 명석이와 또 싸운다.</p> <p>흑색 : 부정적인 견해의 의견을 사고하고 표현하는 색 예) 태수의 행동 : 병철이나 명석을 따돌릴 방법을 생각해 복수한다.</p> <p>황색 :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표현하는 색 예) 태수의 행동 : '내일이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야구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p> <p>녹색 :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색 예) 태수의 행동 : 일찍 학교에 가서 사과하는 편지를 친구의 책상 안에 넣어둔다.</p>			<p>▷ 객관적인 입장이 아닌 정해진 색에 따라 이야기를 꾸미도록 하여 주관적으로 자기 정당화를 해 보도록 한다.</p> <p>▶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간단한 모양의 종이 인형을 만든다.</p>	
도덕적 판단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 만들기 ◎ 꾸민 이야기에 따라 역할을 정한다. ◎ 모듬별로 종이 인형극을 발표한다. <p>■ 의견지 작성하고 토의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자기의 의견을 이유와 함께 의견지에 쓴다. ◎ 터지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울면서 가는 태수의 마음 · 태수가 울면서 갈 때 병철이의 마음 · 명석이의 마음 ◎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야기 나눈다. 			<p>▶ 의견지 자기의 생각이나 입장을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어가며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	

실천동기 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의지 다지기 ◎ 실수나 잘못을 한 친구를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 나눈다. ◎ 선생님의 도움말을 들으며 정리 및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 차시 예고 ◎ 예습과제 : 1.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까닭 알아오기 ◎ 2. 용서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 가짐 알아오기 ※ 두 가지 중 택일하여 해결해 오도록 한다. 	▶ 예습과제지
-------------	---	---------

2) 개념분석 수업 모형

철학자들은 개념 분석의 원형으로 흔히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들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소크라테스가 사람들과 개념들 예컨대, ‘덕’, ‘용기’, ‘정의’ 등과 같은 것들의 정의를 찾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개념들의 의미를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유도한 뒤 그 답변이 충분하지 못함을 반박을 통해 보여 줌으로써 결국에는 대화 상대자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그 자신의 독특한 대화법이라는 것을 사용했었다.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소크라테스는 아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답을 말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개념 분석 모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념 분석 모형에서 교사의 역할은 답을 제시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이 개념의 의미를 점차 높은 수준에서 사고해 내도록 도와주고 유도하는 일이다.

이 같은 개념 분석의 기본 정신 바탕 위에서 그 분석 기법을 보다 발전시킨 윌슨(J. Wilson)의 개념분석 전략을 응용하여 도덕과 수업을 전개시킨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의 문제를 다른 문제와 구분 짓는다. 예컨대, ‘정직을 위하여 우정을 버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자. 하나는 정직과 우정의 의미가 무엇

인가라는 개념적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을 위하여 우정을 버려야 하겠는가라는 규범적 질문이다. 전자의 질문이 답해지지 않고는 후자의 질문이 제대로 답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 명백히 되어야 할 개념이 어느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직과 우정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답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그 개념이 사용되는 전형적 사태를 확인한다. 우정의 경우에, 그 말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사태는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사태의 일반적인 특징을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사람들 사이에 성립된 정 등 일상 생활에서 그 예를 찾아보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그 전형적인 사태와 반대되는 사태를 확인한다. 반대의 사태를 찾아보는 것은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이 적어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떤 특징과 대조적인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넷째, 그 개념의 경계에 해당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어떤 인간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념의 경계에 해당하는 사태를 확인하는 것은 말의 모호성, 즉 말이 뜻하는 바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밝히고 말이 적용하는 사례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섯째, 관련된 개념 혹은 사태를 제시해 보도록 한다. 우정을 설명하고자 할 때 어떤 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혹은 우정이 성립된 관계에 있는 친구는 일상적으로 어떤 생활 경험을 하게 되는가를 밝히게 한다.

여섯째, 가상적인 사태를 상상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 가상적 상태를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상적인 사태에서 밝힐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곱째, 분석된 결과로 얻어진 개념의 의미를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비추어 검토해 보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의미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떤 말을 사용할 때에는 대체로 상당한 정도의 공통된 의미 요소가 있다. 그 공통성이 전혀 없으면 대화가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여덟째,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분석한 내용을 체계화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논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도덕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도덕적 언어의 기능을 바로 파악하는 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3) 가치갈등 수업모형

우리가 도덕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은 각각 별개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규범의 체제는 매우 복잡하고, 또 명백하게 인식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의 우열을 쉽게 분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장면에서는 흔히 둘 혹은 그 이상의 규범(가치)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을 준수해야 하느냐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치 갈등의 해결을 위한 수업은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면화한 규범들이 실제의 생활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실례와 더불어 검토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가치 갈등의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구체적인 갈등 사태를 예화로 제시한다.

(나) 관련된 규범들을 확인한다. 우선 그 사태에서 갈등을 이루고 있는 규범은 어떤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아마도 학생들은 수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갈등하는 규범들을 정확한 언어로 진술하는 일을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다) 관련된 규범의 의미를 명백히 해 준다. 토의를 통하여 갈등에 관련된 규범들의 의미를 명백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 문제 사태의 성격을 밝힌다.

(로) 관련된 규범들이 각각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를 예상해 보도록 한다. 관련된 규범은 하나만이 아닌데도 결국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데에 가치 갈등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각 규범을 하나만 선택했을 때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은 관련된 규범들의 경중을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물론 그 해결에 있어서 제3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 각자 자기 입장을 취하게 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발표하게 한다. 여기서는

학생 자신이 택한 입장 혹은 태도가 반드시 타당한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실상 자신이 택한 행위 방식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습관은 도덕 생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가치갈등의 해결을 위한 수업은 결국 두 가지 형태 중 어느 하나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나는 모두가 합의하는 결론을 얻는 것이며, 또 하나는 팽팽히 맞선 주장으로 인하여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 결론을 보류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결론은 최선을 다하여 방지할 필요가 있지만, 이 때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사고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어떤 결론으로 유도하거나 그것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수업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론은 자연적 흐름의 결과여야 하며, 결론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교사가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결론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이며, 또한 가치판단이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형태의 수업은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에서는 비교적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 사태의 예가 학생의 성숙도에 비추어 적절한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방침은 없으나,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나치게 비극적이거나 자극적인 것은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8〉 가치 갈등 수업 모형의 예시

4학년 11월 1주

제재	5. 용기 있는 생활	차시	1/2	교과서	55~61
본시주제	보고 쓴 답안, 영호의 용기	수업형태	가치갈등 수업		
학습목표	♣ 용기 있는 행동이 의미와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교 수 - 학 습 활 동					
<p>◆ 동기 유발</p> <p>▣ 이야기 나누기</p> <p>◎ 주변 생활에서 용기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은 어떤 때 용기가 필요했었나요? - 장난을 치다 꽃병을 깨뜨려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때 -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 친구를 괴롭히는 남학생을 혼내 줄 때 -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p>▣ 무언극시연</p> <p>◎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예상하면서 무언극을 보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p> <p>◎ 교과서 예화 ‘보고 쓴 답안’의 내용 중 혜영이가 괴로워하는 부분까지를 무언극으로 표현한다.</p> <p>◎ 교과서 56~57쪽을 묵독으로 읽은 후 용기 있는 행동의 의미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하도록 잠시 시간을 준다.</p>					
<p>◆ 공부할 문제 확인</p> <p>♣ 용기 있는 행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p> <p>◎ 학습방법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할 순서 안내하기 · 모듬끼리 이야기 나눌 때 주의할 점 확인 · 선택활동 안내 - 나에게 보내는 편지(개별), 용기 있는 사람들 					
<p>◆ 갈등 사태의 제시</p> <p>◎ 교과서 예화를 읽고 모듬원이 함께 용기 있는 행동의 의미에 대하여 토론해 본다. (56~61쪽)</p> <p>[교과서 예화 : 보고 쓴 답안]</p> <p>[교과서 예화 : 영호의 용기]</p>					
<p>◆ 규범의 의미 알기</p> <p>◎ 모듬별로 공부한 내용에서 갈등을 이루는 내용을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쓴 답안’에서 혜영이는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 - 옳지 못한 일을 했으므로 · ‘영호의 용기’와 같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못 본 척함, 약한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함. <p>◎ 갈등 사태와 관련된 규범을 찾아보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혜영이와 민호에게 본받을 점을 무엇인가? <p>◎ 용기 있는 행동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p>					

◆ 가치의 선택·정당화

◎ '영호의 용기' 를 중심으로 용기 있게 행동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결과를 예상하여 자기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발표하도록 한다.

- 옳지 못한 행동을 용기 있게 막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 못 본 척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 교사가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각자의 의견을 솔직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선택 활동 1] 나에게 보내는 편지

◎ 자신의 다짐을 적은 편지를 스스로에게 써 보낸다.

[선택 활동 2] 용기 있는 사람들

◎ 용기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의 예화를 읽어본다.

◆ 요약 정리

◎ 용기 있는 행동이란 어떤 것인지를 정리한다.

◎ 용기 있는 행동의 필요성을 정리한다.

◆ 수행평가

◎ 용기 있는 행동이란 어떤 행동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지 지필 또는 발표로 평가한다.

◆ 차시예고



4) 집단탐구 수업모형

집단탐구수업 모형은 두 집단의 교육 연구자들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집단 과정의 교육적 가능성을 강조한 시카고 대학의 텔렌(H. Thelen)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 하나의 집단이고, 사회과학 연구 방법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강조한 미시간 대학의 리피트(Lippitt)등이 다른 하나의 집단이다.

텔렌은 학생들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탐구하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집단 탐구를 통해서 학생들은 교과목의 내용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협동적인 학습 태도도 학습할 수 있도록 소집단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리피트는 학생들은 연구하는 학자들의 방법을 사용하며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낱말의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 일반화함으로써 지식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믿고 있다.

〈표-9〉 집단 탐구에 포함된 수업 과정

집 단 과 정	탐 구 과 정
1) 아이디어와 지각의 상호 교환	1) 중요한 질문 또는 가설의 설정
2) 집단 조직, 과업 결정, 작업 분담	2)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그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의 결정
3) 의견 교환, 갈등의 해결, 책임 분담, 지도자, 기록자, 요약자로서의 역할 분담	3)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기
4) 각 집단이 발견한 것을 상호 교환하는 방법 결정 및 준비	4) 정보 분석, 결론의 도출
5) 역할, 의견 교환 등을 포함한 집단 과정의 평가	5) 새로 발견한 것에 비추어 질문을 재구성하고 탐구의 강점과 약점을 토의

집단 탐구 수업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학문의 내용들은 학생들이 그들을 발견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 어린이의 자연적인 호기심은 그들에게 흥미가 있는 문제의 해결을 추구할 때 유발된다.
- 집단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동년배와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는 보다 명료화된다.
- 집단 문제 해결 활동에의 참여는 다른 사람들과 작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학습하게 한다.
- 어린이들은 체계적인 탐구 과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학습해야만 한다.

집단 탐구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사는 유연성을 발휘하여야 하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단서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학습 속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교사는 어떤 단계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단계는 간략히 넘어갈 수도 있다. 집단 탐구의 절차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집단 탐구의 5단계

- 1) 상황의 제시 및 탐구 문제 설정
- 2) 탐구의 계획
- 3) 탐구의 실시
- 4) 발견 결과 발표
- 5) 탐구에 대한 평가

집단 탐구 수업 모형은 본래 사회과와 자연과 등의 수업 모형으로 이용되며, 사실적인 문제의 탐구가 주를 이룬다. 이 모형을 도덕과 수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면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ㄱ) 문제 상황의 제시→탐구 문제 확인 단계(제1차시)

(ㄴ) 탐구 문제의 세분화→탐구 계획의 수립→탐구의 실시 단계(제2차시)

(ㄷ) 결과 발표→종합 정리→탐구에 대한 평가(제3차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11> 집단 탐구 학습 모형 수업의 예시

4학년 7월 1주

제	9. 내가 사랑하는 대한 민국	차시	1/2	교과서	95~100쪽
본시주제	· 안익태 선생의 나라 사랑 · 나라의 발전	수업형태	집단 탐구 학습 수업		
학습목표	♣ 개인의 발전과 나라 발전의 상호 관계를 알고 나라 발전에 협력하는 태도를 갖는다.				
단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문제사태 인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나누기 ◎ 대면 인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갑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VTR을 보여준 후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 애국가가 연주될 때의 마음은? ◎ 교과서 예화 '태수의 눈물' 종이 인형극을 시연한다. ◎ 교과서 글 '안익태 선생의 나라 사랑' 의 글을 제시한다. 			응원하는 모습의 사진이나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의 모습	
문제사태 와 관련된 규범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할 문제 확인 ♣ <u>나라와 나의 발전의 관계를 알고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u> ■ 문제 사태와 관련된 규범 알기 ◎ 안익태 선생의 생각과 행동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노력이 국가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 나라 발전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 학습 활동 방법안내 ◎ 이 시간의 학습 활동 방법을 안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탐구 문제 한 가지씩 안내한다. · 탐구 문제 논의하기 · 모둠별 탐구 내용 발표하기 ■ 모둠 활동하기 <탐구문제 1> 개인의 행동이 나라의 발전을 막는 예와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 : 신문, 잡지 등의 스크랩 자료(예습 과제) <탐구문제 2> 개인이 나라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예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 : 신문, 잡지 등의 스크랩 자료(예습 과제) <탐구문제 3> 나라가 발전했을 때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혜택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 : 설문 조사지(예습 과제) <탐구문제 4>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을 보여 주는 예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 : 백과사전, 참고자료(예습 과제) ■ 모둠 활동 내용 발표하기 ◎ 모둠별로 탐구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한다. * 발표한 내용은 교실의 전시 자리에 전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붙일 수 있는 의견란을 마련한다. 			효과적인 탐구활동을 위해 모둠을 미리 구성하고 생활 주변의 구체적인 사례를 미리 조사해 오기 소집단별로 탐구 문제를 논의하고 문제에 접근하도록 지도하기	
문 제 의 추 구 및 해 결				OHP, TP 실물화상기 모듬 발표판 YTR	

실천동기 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다. ◎ 나의 발전은 물론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발표해 보게 한다. ■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내가 사랑하는 대한 만국 ◎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 조사하기 	예습과제지
-------------	---	-------

5) 가치명료화 수업모형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삶은 선택의 기회를 극대화시킨다. 이 선택은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여 거꾸로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돕기도 한다. 가치 명료화는 개인이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도록 돕는다. 가치 명료화 모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 종교, 우정, 사랑, 돈 등과 같이 ‘가치 문제가 풍부하게 개입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에는 많은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생들은 부모, 동료, 학교 그리고 종교적 영향력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은 흔히 상호 갈등을 일으킨다. 그 결과 학생들은 ‘가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래스 등(Louis Raths, Merrill Harmin, Sidney Simon)은 ‘가치명료화’라고 부르는 가치 수업 모형을 개발해 냈다. 이 모형은 가치화 과정(valuing process)을 통해 가치 혼란을 감소시키고, 일관된 가치 체계를 형성하도록 학생들을 도우려는 시도이다.

가치화 과정이란 하나의 가치가 개인에게 내면화는 과정-선택되어서 행동 패턴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데, 래스 등은 적절한 가치화 과정을 거쳐서 내면화된 가치는 그 개인에게 확고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가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가치가 된다고 본다.

<선택하기(choosing)>

(ㄱ) 자유롭게 선택하기 : 강제로 선택된 가치가 한 개인의 가치 구조에 통합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이 지지하는 그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ㄴ)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기 :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할 때 참된 의미로 자유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선택이 그와 관련된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해 보고 선택했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ㄷ) 결과를 고려한 후에 선택하기 : 가치화 과정은 그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숙고의 과정이기도 하다. 충동적인 선택은 지성적인 가치 체계를 형성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선택하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해 숙고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궁지를 갖기(prizing)>

(ㄹ)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 자신의 가치에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런 마음을 가져야 참된 가치라 할 수 있다.

(ㄹ) 확인하기 : 자기가 선택한 가치를 주장하고 확인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행동하기(acting)>

(ㅁ) 선택한 바대로 행동하기 :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는 행동을 통해 표출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하고 지지하는 가치와 일관되게 행동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ㅂ) 반복하기 : 우리의 가치에 의한 행동은 일관되고 반복적인 형태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 가치 명료화 과정은 본래 교실의 대화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가치를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신념이나 가치를 명료화 질문들(clarifying questing)을 통해서 학생이 과연 자신이 주장한 가치를 확고한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지를 검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과정이 바로 위의 7가지 항목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표-12〉 가치 명료화 학습 모형의 예시

4학년 3월 4주

계	제	2. 소중한 시간	차시	2/2	교과서	25~26
본시주제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		수업형태	가치명료화 학습		
학습목표	♣ 시간을 충실히 활용한 예를 살펴보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교수-학습활동						
<p>◆ 동기 유발</p> <p>▣ 이야기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이었는지 발표한다. ◎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선물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발표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이나 장난감-몇 년, 몇 달 - 컴퓨터- 몇 년 ◎ 닳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도움을 주는 소중한 선물은 없을까 생각해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의 '소중한 선물' 을 예로 들며 눈에 보이는 것만 선물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중한 선물 중 이 시간 공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p>◆ 공부할 문제 확인</p> <p>♣ 시간을 충실히 활용한 예를 살펴보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려는 태도를 기른다.</p> <p>◎ 학습순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할 순서 안내하기 ①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생활 알아보기 ② 좋은 시간을 보낸 경우 찾기 ③ 자리 활동 ④ 시간 활용 계획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끼리 자리 활동을 할 때 주의할 점 확인 · 자리 활동 안내 <p>[말하기·듣기 자리] 격언 퍼즐·퀴즈 [그리기 자리] 시간의 나무 꾸미기 [읽기 자리] 시간을 아껴 쓴 위인들 [쓰기 자리] 나의 꿈을 위해서</p> <p>◆ 자유로운 가치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25쪽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 을 읽고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생활을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 ·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 · '누구에게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는 말은 무슨 뜻인가? <p>[교과서 예화 : 영호의 용기]</p> <p>◆ 좋은 시간을 보낸 경우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시간을 보람있게 보냈던 경우를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을 위해 봉사했던 일(봉사 활동, 주변 등) · 친구를 도와주었던 일(일, 공부, 숙제 등) ·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책을 읽었던 일. <p>▣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고 그때의 기분이나 느낌을 회상한다.</p> </p>						

◆ 대안들의 결과 확인

[말하기·듣기 자리] 격언 퍼즐·퀴즈

◎ 시간 아껴 쓰기를 내용으로 하는 격언들로 퍼즐이나 퀴즈 놀이를 한다.

- 격언 퀴즈 : 격언 카드를 뽑아 뜻 알아 맞추기
- 격언 퍼즐 : 앞 문장을 말하며 뒷 문장 완성하기
- 빈 칸에 알맞은 말 넣어 격언 완성하기

[그리기 자리] 시간의 나무 꾸미기

◎ 자신의 시간 활용을 생각해 본 후 시간을 충실히 활용한 예와 그렇지 못한 예들을 구분하여 '성공의 열매'와 '실패의 잎새'에 표시하고, 이것을 시간의 나무에 붙인다.

[읽기 자리] 시간을 아껴 쓴 위인들

◎ 과제로 조사해 온 예들을 바탕으로 '시간을 아껴 쓴 위인들' 소책자(Work book)를 만들고, 자신의 다짐도 넣는다.

[쓰기 자리] 나의 꿈을 위해서

◎ 자신의 꿈(희망)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다짐을 표어로 만든다.

◆ 실천 의지 강화

◎ 시간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발표하게 한다.

-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작심삼일'이란 무슨 말인가?
-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 시간을 아껴 의미 있게 활용하려면 어떤 점에 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지 이야기 나눈다.
- 자신의 생활 계획을 발표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 요약 정리

◎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

-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
-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해결한다.
- 여유가 있고 생활이 즐겁다.

◎ 용기 있는 행동의 필요성을 정리한다.

◆ 수행평가

◎ 시간을 잘 지키고 아껴쓰는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일을 알고 있는지 지필로서 평가한다.

◆ 차시예고

6) 콜버그의 토론 수업 모형

3수준 6단계라는 도덕 발달 이론을 제시했던 콜버그(L. Kohlberg)는 도덕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덕 교육에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제시한 도덕 교육의 방향은 크게 교실에서 토론을 통한 방법과 학교 생활 자체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실 활동을 통한 도덕 교육은 우리의 도덕과 수업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교사와 학생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도덕과 수업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

는 것이다.

그는 토론을 통해서 토론 참가자들이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도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하나의 도덕 문제에 관해 자신의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고에 접하게 되면, 자신의 본래 입장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그 학생은 자신의 도덕적 추론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콜버그에 의하면 도덕 수업에서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이 보다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도덕적 숙고’를 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도덕적 숙고가 가장 잘 일어나는 경우는 학생이 자신의 단계보다 한 단계 위의(+1단계) 사고에 접했을 때라고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것보다 더 일관되고 복잡한 사고에 접했을 때 ‘인지적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 불균형을 자주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은 보다 높은 단계로의 발달을 자극 받게 된다.

콜버그의 토론 수업은 도덕적 딜레마의 제시로부터 시작된다. 도덕적 딜레마란 이렇 수도 없고 저렇 수도 없는 도덕적 문제 상황이다. 딜레마는 가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이 딜레마를 통해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체는 교사의 질문 제기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토론 수업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바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질문의 단계는 적어도 두 단계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도입단계’로서 학생들이 도덕 문제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게 하고, 학생들의 도덕적 의식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심화단계’로 학생들의 도덕적 추론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의 요소들에 초점을 둔다.

〈도입단계의 질문전략〉

도입 단계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다루고자 하는 도덕적 딜레마나 문제 사태를 학생들이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 학생들이 그 문제에 내재된 ‘도덕적’ 요소들에 대면하도록 돕는다.
- (㉢) 학생들의 판단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이끌어낸다.
- (㉣) 서로 다른 근거를 낸 학생들에게 서로 토론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 역할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질문들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가 있다.

(ㄱ) 도덕적 문제를 부각시키기 - 학생들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하나의 도덕적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철수는 도둑질을 해야만 했을까?’ 등과 같은 당위적 질문들을 제기한다.

(ㄴ) ‘왜’ 라는 질문을 하기 - 학생의 도덕적 입장에 대한 지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예컨대, ‘너의 해결 방안이 왜 좋다고 생각하니?’ 와 같은 질문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그 지지 이유는 다를 수 있음을 배우게 된다. 그 ‘차이’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게 되고,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ㄷ) 상황을 복잡하게 제시하기 - 주어진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 한 가지 방법은 본래의 상황에 새로운 정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상의 도입 단계의 질문들은 도덕 문제의 폭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심화 단계의 질문 전략>

심화 단계의 도덕적 토론에서는 도덕 문제의 ‘깊이’에 초점을 둔다. 심화 단계의 질문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대립되는 주장과 근거들을 깊이 있게 따져 보도록 한다. 심화 단계의 일반적인 질문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ㄱ) 다듬기 질문들(refining questions)

질문들은 동일한 문제의 여러 측면들을 탐색하도록 제기되어야 한다. 단계 변화를 자극하기에는 하나의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학생들은 심화된 논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주장의 근거를 이해하고 또 그것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이 효과적이다.

① 명료화를 위한 질문 : 진술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② 특정한 문제에 대한 질문 : 그 사태와 관련된 하나의 도덕적 문제, 예컨대 권위, 애정의 역할, 계약의 의무, 생명의 가치 중에서 하나의 문제를 더 깊이 탐색해보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신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③ 갈등 해소를 위한 질문 : 2개의 도덕적 문제들 간의 갈등 해소를 자극하기 위한 질문을 제시한다. 갈등 해소는 결국 대립되는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가치들의 우선 순위는 도덕적 발달 단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3단계의 학생들이 ‘우정’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에, 2단계의 학생들은

자신의 이익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 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④ 역할을 바꾸어 보기 : 학생이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해 보도록 한다. 예컨대, 이제까지 ‘아들’의 입장이었다면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문제 사태에 접근할 수 있다.

⑤ 보편적인 적용의 결과를 생각해 보기 : 만약 학생이 취한 입장을 모든 사람이 따른다면 어떤 일이 생긴 것인지를 가상해 보게 한다. 예컨대, ‘모든 사람들이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등의 질문이 그것이다. 이 과정은 학생의 판단이 보편성을 갖는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ㄴ) 인접한 단계(+1단계)의 논의를 부각시키기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학생들의 도덕 발달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것은 그 학생의 수준보다 바로 위의 단계에 있는 사고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토론의 과정에서 +1단계의 논의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학생이 +1단계에 속하는 주장을 제시하면, 교사는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만약 그 반 전체의 학생이 아무도 +1단계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사가 제시한다.

(ㄷ) 명료화와 요약하기

심화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은 질문을 적절히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의 진행을 도와 학생들의 발언을 명료화하거나 요약하는 일도 포함된다.

(ㄹ) 역할 채택(role taking)을 위한 질문

역할 채택을 위한 질문은 앞의 과정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데, 여기서 역할 채택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을 자아 중심적 수준에서부터 타인의 사고, 감정, 그리고 권리 등을 고려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역할 채택은 가족 관계 등 학생과 가까운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시도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표-12> 토론수업의 모형 예시

4학년 10월 3주

제	제	4.다른 사람의 처지	차시	1/2	교과서	41~50쪽
본시주제	일요일의 축구 경기, 뜻밖에 생긴 일		수업형태	토론 수업		
학습목표	♣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 할 수 있다.					
교수-학습활동						
<p>◆ 동기 유발</p> <p>▣ 이야기 나누기</p> <p>◎ 친구들과 약속을 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을 발표하고 이야기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잘못을 무조건 나무라지 않았나요? · 다른 사람이 나의 처지를 해해 주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그렇게 행동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p>◆ 공부할 문제 확인</p> <p>♣ <u>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자.</u></p> <p>◎ 학습순서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할 순서 안내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반응과 예상하는 결과 토의하기 ② 서로의 처지를 바꾸어 토의하기 ③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의 필요성 토의하기 ④ 선택활동 · 모둠 토의를 할 때 지켜야 할 점 확인 · 선택 활동 안내 <p>◆ 문제 사태 파악자유로운 가치 선택</p> <p>[문제 사태 1 : 일요일의 축구 경기]</p> <p>◎ 교과서 예화(42~45쪽)을 읽고, 두 학생간의 입장이 차이를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약속을 하였나요? ·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 진태의 평소 약속에 대한 태도는? ·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진태에 대한 친구들의 입장은? <p>◎ 두 입장의 예상되는 결과를 모둠별로 토의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국이처럼 원망만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 준혁이처럼 남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점은? <p>☞ 질문의 수준을 콜버그의 토론 수업의 모형이 도입 단계의 수준에서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를 부각시키도록 한다.</p> <p>[문제 사태 2 : 뜻밖에 생긴 일]</p> <p>◎ 교과서 예화(46~50쪽)을 읽고 입장을 바꾸어 다시 한 번 토의를 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뜻밖에 생긴 일’ 이란 무슨 일인가? · 사과하려는 진태를 병국리와 민구는 어떻게 대했나요? · 준혁이는 진태를 어떻게 하였나요? · 준혁이에 대한 진태의 심정은? <p>☞ 이 단계에서는 좀 더 심화된 수준의 질문을 제시하고 토론의 진행을 교사가 도와 학생들의 발언을 명료화하거나 요약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p> <p>[선택활동 : 입장 바꿔 생각하기]</p> <p>◎ ‘실제로 해 봅시다’ 의 두 가지 경우를 서로 역할을 바꾸어 가며 역할 놀이를 해 보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 목욕탕에서, 공중 전화에서 						

◆ 실천 의지 강화

- ◎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 ‘뜻밖에 생긴 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했던 점과 준혁이에게서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
 -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일이 어려운 것은?
 - 남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왜 필요한가?
 - 남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기 위해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 요약 정리

- ◎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한다.

◆ 수행평가

- ◎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려는 마음을 가지는지를 관찰로 평가한다.

◆ 차시예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 결 론

이상에서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성교육은 마음의 발달을 위한 정서교육,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교육, 더불어 살기 위한 도덕교육임을 밝혔다.

특히 어렸을 때, 도덕성 발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초등학교 때의 인성교육으로서 이 때에 유의해야 할 점등에 대해서 밝혔다.

둘째, 초등학교 인성교육과 기본생활습관과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인성 즉 사람의 됨됨이는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인 가치에 맞는 행동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생활이 몸에 배어 커가면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예절바른 말과 행동, 친절함, 정직함, 부지런함과 같은 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어린이들에게 기본생활습관을 의도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전한 도덕성과 바른 기본생활습관에서 우러나는 생활태도는 자기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는 응집력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기본생활습관교육의 내용으로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덕목관련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바, 교육과정의 4개 영역 중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덕목 중심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바른 생활에서 28개, 도덕과에서 20개의 기본 덕목이 선정되었다.

지도상의 유의점으로는 지도 항목을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지도하고 지도 항목의 실제적인 상황이 학교나 도서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학생들에게 직접 해 보게 하고, 학교나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상황을 극화하여 시연해 보이는 지도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태도를 제시하고 비판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특히 요즘 일부 선생님들은 자기 학급의 학생이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여도 바르게 지도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또한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지도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도 자료를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가정의 협력을 최대한 얻어야 하고, 각종 학부모 모임에서 구체적인 지도 사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른들의 솔선수범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태도는 담임교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일상적인 언행, 태도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셋째, 기본생활습관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에서 교수·학습 원리를 소개해 보면 직접 일러주기의 원리, 모범을 보고 따라 배우기의 원리, 감동 감화의 원리, 직접해보면서 배우기의 원리, 구체성과 현실성의 원리, 반복과 계속성이 원리 등이 있다. 실천·체험 학습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종류로는 실습·훈련법, 현장학습법, 덕목실천학습법, 집단수련 활동법, 참여적 실천 체험활동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 생활 습관교육의 학습모형과 사례에서 수업의 실재는 무한히 많고, 가변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예언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다. 수업은 오히려 바람직한 수업의 원리를 체득한 지혜로운 교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진행될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다양한 도덕과 수업 모형을 알고 이를 도덕과 수업에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도덕과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학교 현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도덕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 도덕과 교육과정이 인지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에 만연된 도덕적 철학의 빈곤은 학교에서의 인격교육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책으로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강화하고 도덕 교과 시수의 확보, 도덕과 지도 방법의 개선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도덕과 교육과정을 인지적 영역 중심에서 봉사활동, 단체활동 등의 체험 활동, 현장 활동 중심의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확대 적용해야 하며, 도덕 사회화가 이룩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에서는 인성교육중심의 도덕교육을 강조하면서 봉사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등을 도덕교육방법 영역에 포

함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에서의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생활습관교육은 규범 수준이나 도덕성과 같은 거시적 측면보다는 직접 당면하는 작은 규칙들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우리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행하는 상당수의 도덕적 행위 중에는 습관으로 체질화되어야 할 도덕적 행위가 많이 있다. 이러한 도덕적 행위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습관으로 체득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오늘날의 교육은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기본생활습관교육의 지도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도적인 지도와 실천의지가 따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경남교육연구원(1992), 「생활지도 자료」, 경남 인쇄소.
- 경남교육청(1995), 「교육 경남」, 경남교육청.
- 경남교육연구원, 「인간성교육의 이해와 실제」, 예문사.
- 광주광역시교육청(1995), 「21세기를 선도하는 교육개혁」, 세기사.
- 곽병선 외 2인(1997), 「인성교육의 실제」, 중앙교육 심의회 장학편수분과.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 교육부(1992), 「국민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4),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2),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5), 「더불어 사는 사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바른생활」,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권이종(1992), 「교육사회학」, 배영사.
- 김언호(1994), 「인성물성론」, 한길사.
- 김지자 외 4인(1992), 「미래를 향한 가정교육」, 양서원.
- 남궁 달화 역(1992), 「도덕발달과 도덕교육」, 문음사.
- 남궁 달화(1999), 「인성교육론」, 문음사.
- 대전내동초등학교(1996), 「자율적 실천동기유발을 통한 기본생활습관형성」.
- 문용린(1987), 「도덕성의 측정 및 평가」, 중앙교육평가원.
- 박용헌(1969), 「정의의 교육」, 배영사.
- 박장호·추병완 옮김(1998), 「인격교육론」, 백의.
- 변영계(1999), 「지식 경영 사회와 협동학습」, 교육부.
- 변영계·김광휘(1999),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배갑제(1998), 「인성과 효도」, 한국효도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0), 「교육학용어 사전」, 배영사.
 예절교육연구회(1996), 「생활예절교육」, 학문사.
 유병렬, 「도덕교육에 있어서 도덕성의 의미와 그 구성요소」, 서울대학교대학원.
 윤팔중(1994), 「인간중심 교육과정 이론」, 교육과학사.
 윤형원(1995), 「즐거운 우리 반」, 한국교육신문사.
 이돈희(1979), 「도덕과 교육」, 배영사.
 이돈희(1988), 「도덕교육원론」, 배영사.
 이석호 외(1989), 「도덕·가치교육의 교수모형」, 교육과학사.
 이성호(1996), 「인성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국정신문화원.
 이영춘(1983), 「도덕과 교육」, 교학연구사.
 이영춘 외 (1986),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이원종(1996), 「인성교육」 교육자료 제40권.
 이종호(1982), 「도덕과 교육이론」, 학문사.
 이진우(1997), 「EQ 프로그램 함께 하기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이택휘(1993),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방법」, 서울교육
 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이택휘·유병렬 공저(2000), 「도덕교육론」, 양서원.
 인성교육지도자료집(1999), 제주도초등인성교육연구회.
 정문성(1999),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교육부.
 정세구(1977), 「가치이론과 가치교육」, 교육과학사.
 정세구(1984), 「가치·태도교육의 이론과 실제」, 배영사.
 정세구(1987), 「사회과 교육의 과제」, 배영사.
 정세구 옮김(1995), 「인격교육과 덕교육」, 배영사.
 정원식(1977), 「지력과 정의의 교육」, 배영사.
 제주도 교육연구원(1997), 「마음의 문 열린 꿈」, 제주도 교육연구원.
 제주도교육청(1996), 「깨어지지 않은 거울」, 신진인쇄사.
 제주도교육청(1999), 「인성교육 자료집」.
 진교훈 역(1985), 「철학적 인간학」, 경문사.

- 한국도덕교육교육연구회(1977), 도덕교과서, 형설출판사.
- 한국초등교육학회(1996), 「초등학교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학사.
- 한면희(1988), 「사회과 교육의 과정 탐색」.
- 함덕교(1999),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기본생활 습관」.
- 함종규(1983), 「교육과정」,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추병완(1999), 「도덕교육의 이해」, 백의.

<논문>

- 김대영(1987), “도덕성 발달과 학업성취도 지능 및 인성과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 김재영(1980), “정치 사회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박동식(1996), “기본생활예절 중심의 초등도덕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박종배(1998), “도덕교육에서의 인격교육 접근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 신동철(1996) “생활주변 토의활동을 통한 바른생활 습관 형성 사례 연구”, 연구 논문집, 경상북도교육연구원
- 원효원(1987), “도덕성 발달이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 유연호(1997) “바른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생활경험 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구안”, 초등 특별 연구교사 종합 연구 보고집 제18집,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이상우(1989),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 이재순(1996), “아동의 기본생활 습관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조상일(1986), “가치 갈등 수업이 중학생의 도덕성 판단 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교육대학원
- 조영옥(1995) “모의놀이 활동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실천 의지 강화 방안”, 종합 연구보고집 제16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황순자(1997) “도덕적 가치 판단의 내면화와 행동규범의 바른 실천을 위한 논의 활동 학습의 전개”, '97 연구교사 활동결과 일반화 자료 교수·학습 연구, 대구광역시교육청

A. MacIntyre, *After Virtue*, *op.cit.*,

Tomas Likona(1983), *Raising Good Children*, New York: Bantam

R.S. Peters(1981),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London: Geoge Allen & UnWin.

Emile Durkheim(1973), *Moral Education*, rans. by Everett K. Wilson, New York.

William K, Frankena(1973), *Ethics*, 2nd ed. N.J : Prentice-Hall, I

Aristotle(1915), *Ethica Nicomachea*, trans. by W. D. Ross, The Clarendon Press.

Howard Kirschenbaum(1995), *100 Ways to Enhance Values and Morality in Schools and Youth Settings*.

[Summary]

A Study on the Humanity Education Methods through Forming Habits of the Basic Life

Lee, Ae-Sook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Jeong-hun

In this thesis, the humanity education methods through forming habits of the basic life are proposed.

At first, this study explained concepts and contents of humanity and humanity education as the theoretic foundation, then presented briefly teaching principles and methods of humanity education.

Second, as for humanity education and habits of the basic life in elementary school, It introduced education, contents for the habits of the basic life, and attention to teach habits of the basic life.

Third, as for method of teaching and learning for the education in the habits of the basic life. It presented the principle of teaching and learning for the education in the habits of the basic life, the value education method for the practical and experienced activity and the ideas and examples of teaching an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learning model for the subject education.

In conclusion It abstracted the original text and presented the humanity education method.

At last, It suggested some consideration based on the result of study.

It suggested some directions for forming the desirable habits of the basic life in view of the result of study like this. The summary of these is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 for the habits of the basic life must give emphasis to small principles faced directly than wide views like morality and rules.

Second, there are many moral behaviors to be accustomed to forming habits in our daily life. As choosing the moral behaviors like this, we must give experiences to form habits to the students.

Third, It is emphasized the humanity education method in these days. therefore, teaching the habits of the basic life must accomplish constantly.

Forth, It is thought that teaching education for the habits of the basic life can come into effect when the teacher and parents are willing to teach and practice.